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실행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이 영 애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실행연구

배 지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이 영 애

# 인 준 서

이영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행복어린이집 즐거운반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 역할 및 유아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행복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의 실행 과정은 어떠한가?
- 둘째,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행복어린이집 만4, 5세 혼합반인 즐거운반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즐거운반 유아 19명(4세 10명, 5세 9명)과 담임교사 1인이다. 행복어린이집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교사와 함께 평가하면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는 문제점을 8회기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파악과 변화의 계획,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2차 실행과정을 수행하였다.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안 참여관찰과 교사 면담, 비디오 촬영, 문서 수집을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활동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평가하면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기관이 속한 지역 내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적지가 자연스러운 유아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의 역사적 지식 및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유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단순한 실외활동 및 산책활동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을 실행하였다.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적지는 교사와 유아들이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자주 방문하였던 장소였기에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탐방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되었다. 연구자는 유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또래 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조별활동 중심으로 탐방활동을 계획하였고, 교사는 역사적 사실과 상징물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구성자, 안내자, 지원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탐방 활동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사전활동, 본 탐방, 사후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다양하게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교사와 유아의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교사와 유아들은 지역사회 내의 익숙한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새로운 유물과 보물들을 발견하고 탐색하면서 과거에 이곳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궁금해하였고, 탐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의 주체자로서 자신감을 가졌다. 또한 유아들은 과거로부터 현재의 우리의 생활로 이어져 오는 생활주거양식에 관심을 보이며 유아 자신들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활동을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은 1차 탐방기간 동안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조별활동 또래 간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의

견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법을 알아갔다. 또한 탐방활동에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유물과 보물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역사문화유적지를 일상생활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구초기 교사는 역사 지식과 관심의 부족함을 염려하였으나 점차 능동적으로 탐구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교사는 또한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탐방활동을 계획하며 사전활동, 본 탐방, 사후활동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며 새로운 과정에도전하였다. 그리고 탐방활동을 통해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지식을 구성하고 배우는 지식 구성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유아들이 스스로 탐색해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며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안내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b>II. 이론적 배경</b> .....	6
1. 유아역사교육 .....	6
1) 유아역사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	6
2) 유아역사교육의 내용 .....	8
3) 현장학습을 활용한 유아역사교육 .....	10
2. 역사문화유적지 .....	14
1) 역사문화유적지의 개념 .....	14
2)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교육적 가치 .....	15
<b>III. 연구방법</b> .....	19
1. 실행연구 .....	19
2. 연구 참여자 .....	20
3. 연구절차 .....	26
4. 자료수집 .....	31
5. 자료분석 .....	33

<b>IV. 연구 결과 및 해석</b> .....	35
1.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실행 과정 .....	35
1) 1차 실행 :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관심과 흥미 증진 을 위한 지원 .....	35
2) 2차 실행 :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탐방활동과 또래관계 협력 지원 .....	48
2.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 변화 .....	61
1)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	62
2) 적극적으로 지식 구성하기 .....	65
3)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기 .....	65
4) 역사탐방활동 재발견하기 .....	67
<b>V. 논의 및 결론</b> .....	71
1. 논의 .....	71
2. 결론 및 제언 .....	77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즐거운반의 하루일과 .....	21
<표 2> 연구일정 .....	26
<표 3> 탐방활동 지원 실행과정 세부내용 .....	27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인의 오늘날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과거로부터 다듬어져 온 인류의 역사이다. 역사는 과거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성취하였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며(Hoge, 1996), 인류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것을 반영하는 가장 통합된 지식으로서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Melendez, Beck & Fletcher, 2000). 즉, 역사는 인류가 살아온 과정의 기록이고 어떤 사물이 존재해 온 연혁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역사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를 서로 연결시켜 배우는 교육활동이며(정선영, 김한중, 양호환, 이영효, 2001), 과거와 현재에서 발생한 사건, 행위, 사고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 활동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한중, 1994). 유아들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고, 현재의 시간들을 살아가며 지나간 과거의 시간과의 연계, 현재에 미치는 영향, 변화에 호기심을 가진다(이혜림, 2008). Melendez 등(2000)은 역사교육은 유아들의 알고자 하는 본능, 즉 호기심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역사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는 과거와 현재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여 유아가 자신이 속한 실제 삶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지니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유아역사교육은 역사에 대한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유아가 성장하면서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체성 및 민족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즉,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2005a).

역사교육의 목적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들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세상을 바로 보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최완기, 2002). 이러한 역사교육을 통해 유아들은 과거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현재 우리들의 생활 모습과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유아들이 자신의 삶과 친숙한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자아정체감과 역사의식을 길러가도록 하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5b; 교육인적자원부, 2007).

유아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의 개념과 목적을 반영한 역사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적합한 학습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역사교육에서는 역사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며(김한중, 2008; Seefeldt, Dastle, & Falconer, 2010), 문학작품 · 극놀이 ·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여 유아들이 역사의 기본 개념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Cooper, 1995; Maxim, 2004; Melendez et al., 2000). 또한 유아가 역사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고 역사적 사고력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는 현장학습, 극놀이, 다양한 인적 자원의 활용과 조사활동, 개념망의 조직, 문학작품의 활용 등이 포함된다(Hoge, 1996).

특히, 역사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 중에서 현장학습은 유아에게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장소나 기관들을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생활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김남희, 2001). 유아역사교육은 유아들의 발달적 특성에 맞추어 유아 주변 환경의 인적·물적

자원을 탐구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유아가 역사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고 역사적 사고력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주로 방문하는 역사교육을 위한 현장학습의 장소를 하미현(2001)은 유아교육기관 주변의 일상 생활공간, 문화와 전통,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 직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백정미(2002)는 공원, 고궁 및 능과 묘, 학습할 수 있는 곳(과학관, 예절학교),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곳(박물관)을 역사교육을 위한 현장학습 장소로 구분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주변의 일상생활 공간 즉,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도 현장학습의 장소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는 생활의 근거지이자 유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학습의 장소이며(이한규, 2004), 그 지역의 지리적 조건, 산업화 정도, 지역주민들의 생활양식, 역사와 문화 등 자연생태 및 사회생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니며,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사회를 다루는가에 따라서 교육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Bronfenbrenner, 1979). 즉, 지역사회 역사교육은 문화재, 유적지, 사료 등의 지역사회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학습하는 것이며, 역사의 증거가 주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다(윤은미, 2010). 또한 유아는 현장에서 역사적 자료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유아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서혜전, 200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유아교육기관이 속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는 추상적인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인 장소와 연관 지음으로써 유아를 위한 역사 학습도구로 적합하다. 역사문화유적지는 유적지가 속한 지역의 특별함과 역사적 경험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이경영, 1998), 역사문화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유물들은 인류의 경험, 변천 및 발전과정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신지은, 2005). 즉,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유아의 지식 증진 및 가치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이명진, 1998).

유아역사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연표학습활동이 5세 유아의 역사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이봉자, 1998), 의미탐색 전통문화교육과 유아의 국가 정체성 형성(전경화, 2002), 의미 탐색을 통한 역사교육 활동이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김혜진, 2005), 역사교육 활동이 유아의 국가 정체성 형성과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유혜자, 2006)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에서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 연표나 사진을 비롯한 시청각 교수매체를 활용하므로 효과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경험을 통한 유아역사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관련 활동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김경남, 2012; 김명화, 류혜숙, 2011; 김진희, 2010; 김혜진, 2005; 박윤미, 2011; 이봉자, 2014, 현은순, 2014). 그러나 유아가 다양한 역사자료를 활용하여 역사를 탐구하고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역사교육활동은 사진, 그림, 동화자료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유아가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궁금증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교수방법 보다는 이야기 나누기, 위인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기존 방식의 교수방법과 주어진 자료에 대해 인식한 후 비교해 보고 표현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반면, 강산과 윤덕순(2008)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역사교육이 문화재 현장 학습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과 사고력의 발달을 도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여진(2015)은 체험 중심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적 태도가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들이 현장에서의 행동이나 체

힘을 통해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함으로 보다 자발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행복어린이집은 지역사회 특성상 실외놀이 터가 없는 관계로 근거리의 역사문화유적지로 실외활동을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주제와 관련된 단순한 실외놀이와 산책으로만 다녀왔을 뿐 자주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유적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뛰어난 가치와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점이 안타까웠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역사적인 배경, 그에 따른 인물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유아의 생활과 연관 지어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전활동·본 탐방·사후활동의 교수·학습방법을 전개하여 유아들과 교사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을 탐색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의

실행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

의 변화는 어떠한가?

## Ⅱ. 이론적 배경

### 1. 유아역사교육

#### 1) 유아역사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역사는 과거의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든 사실의 총체를 오늘의 인간이 되돌아보는 것으로 과거의 여러 기록물이나 사건 혹은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근원에 대해서 알고 현재를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강우철, 1974; Ellis, 1995; Hoge, 1996, 교육인적자원부, 2005a 재인용). 또한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속성과 변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등에 대한 시간 개념과 그에 관련된 현상에 대한 이해이며, 유아역사교육은 유아 개개인이 자신의 뿌리, 즉 조상과 조상의 문화를 찾고, 타인의 근원을 찾으려 하며, 이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다(Melendez, Beck & Fletcher, 2000). 이처럼 유아역사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고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과거와 현재에서 발생한 인간 활동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정선영·김한중·양호환·이영효, 2002).

따라서 역사교육의 목적은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으로,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세상을 바로 보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최완기, 2002). 즉, 유아역사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 변화와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함으로써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교육의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Piaget의 인지이론에 근거하여 유아의 발달 특성상 추상적인 시간 개념이나 논리적 추론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아기에 역사를 배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안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Hallam, 1970). 그러나 유아들은 역사적인 주제를 통해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며, 자신들과 가까우면서도 흥미 있는 사건과 사람들을 연구할 때 유아들은 탐구적인 태도가 형성된다(Dewey, 1966). 또한 유아가 역사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역사교육은 충분히 가능하고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Barton, 2002).

역사교육은 유아의 선천적 호기심에 부응하고, 유아와 함께 역사적 주제를 탐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적절하다(Melendez et al., 2000, 유혜자, 2006, 재인용). 첫째, 역사교육은 유아들의 선천적인 호기심과 일치한다. 역사적인 주제를 통하여 유아들은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며, 과거와 관련된 것을 탐구하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둘째, 역사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는 유아들이 그들의 삶을 형성해 가는 사건과 개인들의 실제 삶에 대한 감각을 제공한다. 이는 유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람들, 가족들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모험에 몰두하게 한다. 셋째, 유아기의 역사적인 내용은 자신의 문화와 중요한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적인 내용의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의 결정, 성취, 그리고 그들의 영향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다. 넷째, 다원화 세계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를 배우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촉진시키는데 기초가 된다. 다섯째, 역사를 통해 유아들은 그들의 문화와 다른 민족들의 문화에 대한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여섯째, 역사적 관점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동된 경로와 그들의 노력 및 유산에 대해 인식 할 수 있게 한다. 일곱

제,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과 영웅들을 동일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유아들의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과 자아개념을 촉진시킨다.

유아기에는 자기 자신과 세계, 그리고 사회에 대해 발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자신들이 누구이고 무엇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사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NCHS, 1994). 또한 역사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자아정체감과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이원순, 이정인, 198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에 대한 유아들의 선천적인 지적 호기심은 유아기의 역사교육이 가능하며 필요한 것임을 알려준다. 유아들은 역사적인 개념과 내용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아의 흥미와 발달수준에 적합한 역사교육활동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역사 속에서 유아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역사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통해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2) 유아역사교육의 내용

유아역사교육에서는 주로 역사적 개념들로 역사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 개념들은 학습자인 유아가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한중, 2008). 유아들은 개념의 형태로 조직된 자료를 통해 세계를 인지하므로(이은화 외, 2008),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보다는 역사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유아역사교육에 보다 적합하다(Seefeldt et al., 2010).

역사교육의 개념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Melendez 등(2000)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역사의 주요 내용 요소를 시간, 사람, 공간과 장소, 사건과 변화의 4가지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유아에게 적합한 역사교육의 개념에 대해 Seefeldt(2000)는 시간, 변화 인류의 지속성, 과거, 역사가의 탐구방법을 제시하였으며, Ellis(1995)는 원인과 결과, 계속성, 관계성, 역사성, 시간과 연표, 변화, 리더쉽, 문화창조, 국가주의 및 세계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Hoge(1996)는 사건의 연대적 순서, 기념물, 갈등과 화해, 문화적 유산 및 과거와의 관계, 권위를 역사교육의 주요 개념으로 제안하였다. 국내의 유아역사교육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김혜진, 2005; 박찬옥 외, 2010; 이영자 외, 2001; 이은화, 김영옥, 2008; 조순옥 외, 2010) 공통적으로 역사적 개념을 시간, 변화, 연속성, 인과관계, 과거(사건, 사람, 사물), 현재, 미래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2005a)는 역사교육 내용 선정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유아에게 적절하고 의미 있는 역사교육 내용을 시간, 변화, 인과관계, 생활의 연속성, 리더쉽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아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기존 교육과정과 통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역사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교육에 대한 탐구방식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유아들의 성장배경과 사전 경험 등을 고려하여 친숙한 주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간개념을 다룰 때 정확한 시간 구분을 목표로 하기보다 아주 오래된 옛날, 옛날, 지금과 같이 구별하여 역사적 주제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유아들이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역사 자료를 사용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섯째, 역사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탐구로 과거의 인물들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연결 지어 역사교육의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 변화, 삶의 연속성, 과거 등과 같은 개념들은 유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역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개념은 과거와 관련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을 때 유아는 현재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근원과 기원, 가깝고 먼 옛날 과거인의 생활방식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온 공적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된다(Melendez, Beck & Fletcher, 2000).

따라서 유아들이 그들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역사를 탐색할 때 의미 있는 역사학습이 가능하다(Bredenkamp & Rosegrant, 1995). 유아들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고, 현재의 시간들을 살아가며 지나간 과거의 시간과의 연계, 현재에 미치는 영향, 변화에 호기심을 가진다(이혜림, 2008). Melendez 등(2000)도 역사교육은 유아들의 알고자 하는 본능, 즉 호기심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역사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는 과거와 현재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여 유아가 자신이 속한 실제 삶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지니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즉, 역사교육을 통해 유아들도 과거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현재 우리들의 생활 모습과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유아들이 자신의 삶과 친숙한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자아정체감과 역사의식을 길러가도록 하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5b; 교육인적자원부, 2007).

### 3) 현장학습을 활용한 유아역사교육

교수·학습방법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로 유아역사교육을 계획함에 있어 교사는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적 특성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주제와 교수방법을 선정함으로써 유아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5b; Melendez et al., 2000; Seefeldt, 2005). 역사교육의 내용이 유아에게 적합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의 원리, 교수전

략, 활동유형, 교수자료 등의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므로(이봉자, 2014), 교사는 유아에게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선정하고 실시하여 유아들이 의미 있는 역사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자들은 역사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Melendez 등(2000)은 역사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적 인식을 발달시키기, 예술을 통해 역사 경험을 창조하기, 박물관 활용, 문학작품을 통한 과거로의 여행, 역할 놀이나 상상놀이와 같은 극놀이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Hoge(1996)은 현장견학, 극놀이, 다양한 인적 자원의 활용과 조사활동, 개념망의 조직, 문학작품의 활용 등을 역사교육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매체와 도서, 편지, 일기, 오래된 자료, 현장학습 등의 교수자료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Maxim(2004)은 역사교육을 문학 중심의 접근, 생활사 박물관으로의 여행, 구술사와 원사료의 활용, 연대기적 접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Seefeldt(2005)는 이야기 나누기, 신화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 활용하기, 토의하기, 조형활동, 요리활동, 현장 견학, 연표 만들기 등 역사교육의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2005a)에서는 역사 이야기를 통한 접근, 역사가의 탐구적 접근, 멀티미디어를 통한 접근, 역사 관련 확장 활동을 통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역사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 중에서 특히 현장학습의 측면에서 볼 때, 역사교육을 위한 현장학습은 유아에게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장소나 기관들을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생활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김남희, 2001). 또한 현장 학습을 통한 생생한 경험은 유아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며 교실에서의 학습을 강화시키고 확장시켜 주는 중요한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

다(이영자, 이기숙, 1986). 즉, 현장학습을 통해 경험하고 학습하는 범위는 유아 주변의 물리적, 자연적 세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의 사회적 생활이나 역사에 관한 예술적 관심까지 포함된다.

현장학습은 유아들이 교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옷감과 가구 그리고 도기 및 각종 미술품을 관찰하기 위해 박물관 혹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역사이해를 촉진한다(Maxim, 2004). 또한 역사적 장소로의 현장학습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러한 현장학습을 활용한 역사교육은 유아들에게 과거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며, 현장의 구체적인 유물과 유적을 통해 유아들은 추상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이해하고 지식을 증진 할 수 있다. 즉, 현장학습을 통한 역사교육은 유아들에게 과거 생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상상력을 유발하고 유아 자신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주로 방문하는 역사교육을 위한 현장학습의 장소는 유아교육기관 주변의 일상 생활공간, 문화와 전통,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 직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된다(하미현, 2001). 또한 공원, 고궁 및 능과 묘, 학습할 수 있는 곳(과학관, 예절학교),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곳(박물관)으로 역사교육을 위한 현장학습의 장소로 구분되기도 한다(백정미, 2002).

이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이 역사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현장학습 장소에는 지역사회도 포함되며, 지역사회는 생활의 근거지이자 유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학습의 장소이다(이한규, 2004). 지역사회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 및 생활양식, 역사와 문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유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유적지로 직접 찾아가

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껴 체험함으로써 문화유적의 미적, 역사적인 특징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남은경, 2007). 유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존재하고, 한번쯤은 본 적이 있는 문화유적을 학습 자료로 이용함으로써 유아들에게 흥미와 동기가 유발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기를 수 있다(문화재청, 2000).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학습을 활용한 역사교육은 유아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문화의 특징을 발견하고 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유아들이 추상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구체적인 유물과 유적을 탐구하면서 역사의식과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즉, 현장학습은 유아역사교육의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

## 2. 역사문화유적지

### 1) 역사문화유적지의 개념

역사는 과거의 여러 기록물이나 사건 혹은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근원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것 뿐 아니라 현 세계를 살아가며 만나가게 되는 여러 현상과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정보와 맥락을 제공한다 (Ellis, 1995). 또한 인류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역사가 남겨놓은 흔적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

역사는 다양한 형태의 사료(史料)로 후손들에게 전해진다. 사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유물과 유적이다. 유물(遺物)은 과거 사람들이 남긴 물건들로 그들이 생활하면서 만들어 놓은 움직일 수 있는 잔존물을 가리키며, 유적(遺蹟)은 무덤이나 집터처럼 형태가 크고 무거워 쉽게 위치를 바꿀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국립문화재연구소(2002)는 고고학적 의미에서 유물을 과거 인간들이 살아나가면서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라 했고, 유적은 고고학적인 의미에서 유적의 성격에 따라 주거지, 폐총, 가마, 야철지, 논터(水田地), 밭터(田地), 우물터, 무덤(墳墓) 등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유적은 옛 인류가 남긴 유형물의 자취, 역사상 큰 사변이 있었던 자리를 뜻하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전통적인 공간으로 계승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문화유산이다. 즉, 역사유적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총산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계승되고 발전된 것으로 고유성·역사성·지역성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박명희, 1994). 또한 인류의 경험, 변천 및 발전과정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무한한 교훈을 주는 교육적 존재 가치로서 새로운 경험과 지적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유적, 유물로 정의할 수 있다(박은경, 2010; 신지은, 2005).

그러므로 역사문화유적지는 유명한 건물이나 큰 사변(事變)이 있던 장소로 문화적인 고적지가 있는 곳(ruins), 패총(貝塚), 고분 등 고고학적 유물이 있는 곳(remains), 선현과 고인(古人)들이 남긴 영지(令旨)로 구분될 수 있다(김홍운, 1988).

박명희(1994)는 역사문화유적을 후대에 전가되어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정신문화, 현 세대에서 잠시 관리·보전하는 재생 불가능한 역사적 소산물이라 하였다. 백령(2005)은 역사문화유적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의미와 가치를 갖기도 하면서 그것이 생산된 사회의 다양한 면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즉, 역사교육에서 역사문화유적은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증거물로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학습 자료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역사문화유적지는 과거 인류가 만들어낸 유형·무형의 모든 소산을 포함하는 역사적 의미가 강한 유적지이며, 또한 역사문화유적지는 그 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유물과 유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에 좋은 장소가 된다.

## 2)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교육적 가치

역사문화유적지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유사한 경관과 역사적 경험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민에게는 소속감과 주체 의식을 유발시키며 외부인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매력으로 인식되어진다(이경영, 1998). 또한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유적지의 유물과 유적을 소재로 조상들의 생활·문화·역사를 학습하고 만들기 체험이나 따라 배우기 등을 통해 역사의 가치를

개당도록 한다(문화재청, 2000).

역사문화유적지의 유물과 유적은 그것이 제작된 당대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을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로 활용된다. 강선주(2006)는 역사교육의 자료로 유물과 유적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교사가 제시하는 역사적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된다. 두 번째는 유물과 유적은 역사교육의 자료로 활용되어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역사를 구성해보도록 하는 역사 학습의 주 자료로 활용된다. 역사학습의 주 자료로 활용되는 두 번째 방법은 역사가들이 유물과 유적을 역사적 증거로 활용하여 역사를 서술하게 되고 그 과정을 기본 토대로 하여 역사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유물과 유적을 역사적 증거로 활용하여 그 당시의 역사를 한 층 생생하게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역사 자료 활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윤정현(2011)은 학생들이 역사를 책으로 교육하는 것 보다 역사문화유적지 유물과 유적 탐방활동을 통해서 당시 조상들의 삶을 훨씬 생동감 있게 체험함으로써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유적지 탐방을 다녀온 초등학생은 그렇지 않은 초등학생보다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고, 이는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유물과 유적을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한 교육적 가치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김한중, 2001; 문화재청, 2000; 정승혜, 1990) 첫 번째는 역사문화유적지는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 흥미와 역사적 관점을 가장 잘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역사교육에서 교사는 친숙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탐구심을 이끌 수 있다. 즉,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활용한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의식과 자아정체감을 기를 수 있다. 두 번째는 역사문화유적지에는 과거 사람들

이 생활하면서 사용하고 경험한 시대의 생활양식이 통합적으로 담겨져 있다. 또한 역사문화유적지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적 의미와 특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문화유적지 탐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역사적 지식들을 학생들이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역사에 대한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역사문화유적지 역사교육에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그 시대의 생활모습을 이해하며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즉,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역사적 인물, 사건, 행위들의 추상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구체적인 유물과 유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사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이처럼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유물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교육은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형성되도록 하는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활용한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역사교육의 교육적인 가치는 유아를 위한 역사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과거의 사람과 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역사문화유적지의 구체적인 유물과 유적을 활용하여 유아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탐구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역사문화유적지의 유물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자신의 삶과 친숙한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자아정체감과 역사 의식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유아역사교육에서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

(문화재청, 2000),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 유아들이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탐색하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물음을 통한 탐구학습이 용이하고, 그 유적지가 만들어진 시기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유아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을 접하면서 자신의 고장, 국가, 민족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역사교육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가 갖는 독특성과 조상들의 창의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유아들의 역사의식을 함양하는데 교육적 가치가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실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교사의 역할과 교수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행연구는 교사가 주도가 되어 교육현장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천하는 연구방법이나(김은영, 2012), 교사는 교수학습활동 및 수업에 대한 질적 개선을 위해 실행연구를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배장오, 2008). 따라서 교사와 연구자가 협력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상이 아니라 대화자로서 노력하는 협력적인 실행연구가 필요하다(이용숙, 김영미, 김영천, 이혁구, 조덕주, 2004).

실행연구에서는 교육의 실제 및 개선에 초점을 두며 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와 연구자 간의 협력 형태가 중요하다(김지혜, 2011). 협력적 실행연구는 연구자와 교사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연구에 있어서의 동등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평적 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김희연, 2004).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인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탐방활동이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한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안타까웠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이 단순한 실의활동이나 산책의 의미에서 벗어나 그 지역사회

의 역사문화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역사적인 배경, 그에 따른 인물들과 사건들을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나온 내용을 토대로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에 따라 실행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참여자

### 1) 행복어린이집<sup>1)</sup>

행복어린이집은 기독교 정신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행복어린이집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종교시설 건물 중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어린이집 입구에는 경비원이 상시 근무 한다. 1층에 원장실 및 조리실, 실내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희실과 5개의 보육실, 3개의 화장실이 있으며, 주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가 연결되어 있다. 별도의 실외놀이터가 없으나 건물 내 강당 및 넓은 공간이 있어 우천으로 인한 실외대체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아 취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정원 49명으로 0세 2학급, 1세 1학급, 2세 1학급, 3세 1학급, 4~5세 1학급, 장애누리반 1학급이 있다. 보육교직원은 총 10명으로 원장, 교사 6명, 특수교사 1명, 비담임, 조리원이 근무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으로 12시간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교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표 2는 행복어린이집 즐거운반 하루일과를 정리한 것이다.

---

1) 본 연구의 기관명과 학급명은 가명임.

<표 1> 즐거운반의 하루일과

시간	활동
7 : 30 ~ 9 : 20	등원 및 맞이하기
9 : 20 ~ 9 : 40	오전 간식
9 : 40 ~ 9 : 50	활동소개 및 계획, 인사 나누기
9 : 50 ~ 11 : 00	실내자유선택활동
11 : 00 ~ 11 : 10	정리 및 화장실 다녀오기
11 : 10 ~ 11 : 20	대. 소그룹 활동 1
11 : 20 ~ 11 : 40	대. 소그룹 활동 2
11 : 40 ~ 12 : 00	점심준비
12 : 00 ~ 13 : 00	점심 및 이 닦기
13 : 00 ~ 14 : 00	실외활동
14 : 00 ~ 14 : 30	대. 소그룹 활동 3
14 : 30 ~ 15 : 30	휴식 및 개별 활동
15 : 30 ~ 16 : 00	간식준비 및 화장실 다녀오기, 오후 간식
16 : 00 ~ 17 : 30	오후 실내 자유선택활동
17 : 30 ~ 19 : 30	통합보육 및 귀가지도

행복어린이집 교육과정은 매일 하루일과 중 1시간 이상 실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영유아에게 맞는 별도의 실외놀이터가 없고 주변에 귀금속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서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행복어린이집에서는 지역사회 내 탐골공원, 청계천, 운현궁 등 유적지로 실외활동을 계획하여 나가고 있다. 그 예로 어린이집 근처 탐골공원이나 운현궁 등의 유적지로 나가 실외활동으로 계획된 ‘바람개비 날리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

이와 같이 유적지 내 넓은 공간과 장소들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실외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였다. 역사문화유적지에서 나무 관찰하기와 정자에서 휴식하기, 물고기 관찰하기, 관찰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었다.

## 2) 교사

만 4세, 5세 혼합연령 즐거운반의 담임교사는 만 41세로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여 10년의 경력이 있다. 즐거운반 교사와 연구자는 행복어린이집에서 2년 동안 원장과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육철학 및 교육가치관을 나누고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2014년도 만 4세, 5세반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교사는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며 연구자의 연구계획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다음은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교사 저널의 일부이다.

처음에는 나들이처럼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우리 동네의 명소로 알려진 곳들을 방문했었다. 탑골공원, 종묘, 운현궁, 경복궁, 청계천, 광화문....., 문화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큰 장점이자 혜택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우리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역사문화유적지 실외활동인데,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대형버스로 이동하여 역사문화유적지로 견학활동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교사저널 2015. 3. 22)

그동안 유아들과 일과운영의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던 장소에 대한 교사의 생각 변화를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역사적 상징과 그 교유의 의미에 관심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3) 연구자

역사문화유적지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구자의 기억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구자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사생대회와 소풍을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고궁과 능으로 다녀왔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의 현장학습 경험으로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친구들과 함께 한 고궁 탐방이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했던 소풍과 사생대회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의 좋은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갔던 고궁과 능은 연구자가 살던 집과 가까운 곳으로 평소 또래들과 자유롭게 뛰어 놀던 장소였다. 어린 시절 고궁에서 친구들과 그림 그리고 도시락을 나눠먹으며 활동했던 기억들은 지금도 그 장소에 가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소풍을 갔던 고궁과 능이 현재는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위해 관람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하여 놀이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 한 후 역사교육 과목인 세계사와 국사 중에서 특히 국사 과목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나라 역사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에 흥미 있었다. 지식을 암기하는 위주의 학습 방법이 어려웠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흥미롭고 재미있었으며 그것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감동하기도 했다. 때문에 역사이야기를 다룬 역사다큐 책이나 유적지에 관한 책을 좋아했고 가족들과 명절이나 계절이 바뀔 때면 유적지를 방문하였다. 여전히 역사책이나 역사다큐프로그램 등을 보는 것이 좋고 가족과 지인들과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을 즐겨 찾곤 한다.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연구자의 좋은 기억들은 교사 생활을 시작하며 유아들과 함께 한 역사문화유적지 현장학습에도 영향을 주었다. 역사문화유적지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은 유아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역사의식 및 자아정

체성을 함양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활동을 역사문화유적지, 박물관, 고궁에서 진행하는 유아 예절교육 등과 연계하여 확장 하였다.

행복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근무 하게 되면서 행복어린이집이 속한 지역사회 특성을 알고자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지역적인 특성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행복어린이집이 속한 지역사회에 역사문화유적지가 많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어린이집만의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원장 해외 연수로 방문하였던 나라의 유적지에서 그곳의 역사적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다. 연수에서 다른 나라의 유적지 방문은 우리나라 역사문화유적지의 소중함과 역사적 의미들을 더 잘 알아야겠다는 동기유발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유아역사교육은 사진, 그림, 동화 자료, 이야기 나누기 등을 통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와 관련된 현장학습으로 박물관이나 역사문화유적지를 다녀오고 있다. 그러나 역사와 관련된 현장학습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상징성과 역사적인 장소에 대해 그곳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행복어린이집은 평소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로 실외활동을 다녀왔음에도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알고 느끼기 보다는 생활주제와 맞추어 산책과 실외놀이를 했다. 가끔 유적지의 유물이나 보물들을 보며 유아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할 때는 교사가 잠깐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활동이 마무리 되곤 하였다. 이에 유적지를 한 번 둘러보고 마는 유적지 관람이 아니라 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그곳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역사교육으로 확장하고 전개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추상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역사문화유적지에서 구체적

인 유물과 보물을 보고 느끼고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궁금증을 제시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하는 의미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유아들이 역사문화유적지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들을 알고 앞으로 소중하게 보존해야 하는 우리의 유산임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 4) 유아들

즐거운반의 유아들은 만 4세, 5세 혼합연령(4세 남아 3명, 여아 6명, 5세 남아 3명, 여아 6명)과 만 5세 언어발달지연 발달장애 유아 1명(여아 1명)으로 모두 2년 이상 재원 하였으며 총 19명의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즐거운반의 유아들은 맞벌이 가정의 유아가 17명으로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원 하는 시간이 늦다. 이에 행복어린이집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즐거운반의 유아들을 위하여 매일 실외활동을 계획하였고, 주로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나무 관찰하기, 비둘기와 개미 관찰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주 1회 숲 체험 활동과 단원에 따른 현장학습 다녀오기 등 실외활동 경험이 많다.

이와 같이 즐거운반의 유아들은 실외활동 경험이 많고, 실외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활동이 생활주제와 관련된 실외활동이었으므로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정보나 역사적 배경, 역사적 상징성 등과 관련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은 많으나 그곳의 역사적 의미에 흥미를 가지고 탐구해 보는 기회가 없었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자는 2015년 5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교사 역할을 지원하는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3은 실행연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표 2> 연구일정

단계		기간	실행 절차
계획		2015. 1.5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즐거워반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문헌연구</li> <li>-선행연구 분석, 역사문화유적지 조사</li> <li>-2014년에 실시한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분석</li> <li>-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계획</li> </ul>
교사 역할 지원 실행 과정	1차 실행 및 평가	2015. 5.6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한 지원</li> <li>•1차 실행 및 반성과 2차 실행 방안 모색</li> </ul>
	2차 실행 및 평가	2015. 6.15 ~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 지원</li> <li>•유아 자율성 및 또래관계 협력 증진을 위한 탐방 활동 지원</li> <li>•2차 실행 및 반성</li> </ul>
평가		2015. 8.3 ~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방활동 지원 실행과정에 대한 전체 평가</li> <li>•실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와 유아의 변화양상 분석</li> </ul>

<표 3> 탐방활동 지원 실행과정 세부내용

실행기간		탐방활동 지원 실행과정 세부내용	
1차 실행 및 평가	2015. 5. 6 ~ 6. 12	<p>&lt;실행초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흥미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안</li> </ul>	
		<p>&lt;연구자와 교사가 협의한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선정 및 관련 자료 협의</li> <li>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탐방활동을 위한 계획 지원</li> <li>탐방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 증진 위한 계획 지원</li> </ul>	<p>&lt;교사가 탐방활동을 위해 실천한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탐방활동 위해 안내해주고 격려해주기</li> <li>유아조별 구성 및 탐방 활동 자료 제공</li> <li>사전-본 탐방-사후활동 계획에 따른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활동 : 이야기나누기 및 경험나누기, 표상활동</li> <li>-사후활동 : 경험나누기 및 흥미영역 확장활동</li> </ul> </li> </ul>
<1차 실행에 대한 평가>			
2차 실행 및 평가	2015. 6. 15 ~ 7. 31	<p>&lt;실행초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적지 선정 및 활동계획</li> <li>유아 자율성 및 또래관계 협력 증진 탐방활동 방안</li> </ul>	
		<p>&lt;연구자와 교사가 협의한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적지 선정 및 관련 자료 협의</li> <li>유아조별 및 탐방활동자료 난이도 재구성</li> </ul>	<p>&lt;교사가 탐방활동을 위해 실천한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조별인원을 혼합연령에서 동일연령으로 재구성 실행</li> <li>탐방활동자료의 연령별, 수준별 난이도를 재조정하여 실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탐방활동 계획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적지 활동계획에 따른 사전-사후활동 실행</li> <li>-사전활동 : 이야기나누기 및 경험나누기, 표상활동</li> <li>-사후활동 : 경험나누기 및 흥미영역 확장활동</li> </ul>
--	--

### 1) 문제인식

행복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은 주택가가 아닌 상권이 집중된 곳으로 어린이집 내에 실외놀이터를 설치할 여건이 어려우며 지역의 특성상 인근에 놀이터나 대체할 만한 공원이 없다. 이를 대체하여 행복어린이집 근거리에 역사문화유적지인 탑골공원, 운현궁, 종묘, 청계천 등으로 실외활동 및 지역사회연계 활동이나 일상생활 활동들을 연계하였는데 그동안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로 실외활동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행복어린이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행복어린이집에서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실외놀이터나 공원을 대체하여 교육과정에서 해야 하는 필수 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즉, 유아들과 매일 다니는 지역사회 유적지에 대해서 역사문화유적지라는 개념보다는 나무 관찰하기와 정자에서 휴식하기, 물고기 관찰하기, 관찰행사에 참여하기 및 산책하기를 포함한 실외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일상생활에서 관련 깊게 접하고 있으면서도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고유의 뛰어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유아역사교육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는 행복어린이집 일과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의 역사적

가치 및 상징들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에 연구자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가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자연스러운 유아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역사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2) 1차 실행

1차 실행에서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자와 교사는 행복어린이집이 자주 접하는 역사문화유적지를 선정하였고 유아들이 탐방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적지 내 유물과 보물을 탐색하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은 교육과정 일과운영에서 매일의 실외활동 중 주 1회 실시하였다.

교사와 유아들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탐방할 수 있도록 사전 활동-본 탐방활동-사후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소그룹으로 조를 구성하여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탐방활동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유아들이 유물과 보물에 대해 서로 의논하며 탐방할 수 있도록 활동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교사 주도적이고 지식전달식의 교수방법이 아닌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3) 2차 실행

1차 실행 결과 교사와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유물과 보물을 발견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탐방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졌다. 교사는

유아들이 유물과 보물에 흥미를 보이며 질문들이 나타났을 때 유아들의 생각과 의견을 탐방 과정에 반영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탐방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역사지식을 흥미영역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사후활동을 계획하여 제공하였다. 유아들은 흥미영역에서 원각사지십층석탑 쌓기, 탐골공원 꾸미기, 유물과 보물 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구체화 하였다.

그러나 1차 실행과정에서 교사는 탐방활동에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감에 있어 구성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유아들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유물과 보물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도록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조별활동으로 인하여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흥미를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특히, 혼합연령 중 만 5세 유아들이 만 4세 유아들과 의논하고 알려주며 탐방활동 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1차 탐방 역사문화유적지로 선정한 탐골공원의 유물과 보물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사실들을 가지고 있어서 유아들의 현재 생활모습과 관련 지어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2차 실행에서는 1차 실행 결과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와 교사는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선정하고 유아들의 자율성 및 또래 관계 협력 증진 탐방활동 모색에 초점을 두고 실행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역사적 의미를 유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또래 관계 협력을 통한 탐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별활동과 활동자료를 재조정하여 실행하였다.

## 4. 자료수집

### 1)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의 세계에 들어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삶에 참여하며 관찰하는 것이다(Bogdan & Biklen,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유아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유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면에서 완전한 참여자로서의 참여관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유아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사전·사후활동 및 탐방활동에 보조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내부자의 시선과 역할을 통해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을 위한 사전 이야기 나누기 시간과 유적지로의 탐방활동 및 사후활동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으며 촬영하는 모습으로 인해 교사와 유아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1차 탐방실행인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주 동안 3회기 탐방활동과 5회의 사전·사후 활동을 참여관찰 하였다. 사전 이야기 나누기의 시간은 20분 ~ 25분정도 진행되었으며, 탐방활동은 1시간동안 이루어졌다. 1차 탐방실행 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정책에 따라 탐방 활동을 2주간 중지하였고, 이후 부모와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6주 동안 2차 탐방을 실행하였다. 연구자는 2차 탐방기간 동안 5회기 탐방활동과 10회의 사전·사후 활동에 참여관찰 하였다. 사후활동은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자유롭게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담임교사에 의해 녹화된 자료로 전사하여 기록하기도 하였다. 참여관찰 과정에서 연구자는 보조자

적인 역할로 탐방활동에 참여했고 실외에서의 자유로운 탐방활동으로 인한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전 이야기나누기와 사후활동에서는 수동적인 지원자의 역할로 참여하였고, 활동적인 탐방활동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 2) 심층면담 및 협의

협력적 실행연구에서는 연구자와 교사와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문제에 대한 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참여 교사와의 면담과 협의의 과정을 가졌다.

교사와의 면담이나 협의는 오전에 유아들이 등원하기 전 시간이나 다른 활동으로의 전이시간, 활동 이후시간을 이용하였다. 1회 면담 및 협의를 위한 시간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면담은 직접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반 구조화된 면담자료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협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서로 교환하거나 공통된 내용을 찾아가기 위해 수시로 기회를 가졌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자가 녹음을 한 후 전사하였으며, 수시로 협의를 할 때는 연구노트에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탐방활동의 전 과정을 교사가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하기 전, 후 또는 사전·사후 활동 전개하기 전에 교사에 의하여 집단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의 형식은 탐방활동에서 조별활동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조별로 함께 한 활동에 대한 좋았던 점과 기억에 남았던 활동들을 위주로 질문하였다. 그리고 자유선택활동시간 등의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탐방에서 하

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어려웠거나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지 연구자가 유아들과 개별면담을 하였다.

### 3) 교사저널

교사저널은 탐방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 내기 위하여 연구자가 교사에게 반성적으로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다녀온 후와 사후활동을 마치고 난 후 기록하며, 탐방활동을 계획하면서 작성한 저널과 탐방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작성한 저널까지 교사가 기록한 저널 자료는 A4용지 총 22매 분량이였다. 연구자는 유아교사에게 탐방활동 계획 이전의 실외활동 경험에서의 문제점과 탐방활동을 실행하면서 느낀 점과 달라진 점, 궁금한 점, 문제점과 개선점 등 어려움과 실행의 과정 들을 저널로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 5. 자료분석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실행과 변화과정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간동안 수집된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의 사전, 탐방, 사후활동의 전 과정을 동영상과 활동자료, 저널과 협의내용 및 노트, 면담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서로 연관 있는 내용들을 유목화 하여 범주화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맞은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 적합한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도록 면담 및 전사료, 교사저널을 반복적으

로 읽었으며 다양한 선행연구와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초기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실행에 따른 과정을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에 따라 사례들을 유목화하여 분류하였고 분류한 자료를 다시 읽으며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제들을 변경하였다. 1차 2차 3차 범주에 대한 내용을 재조직하고 세분화하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진행에 따른 실행과정 및 결과 해석, 분석에 관하여는 유아교육전문가 1인의 조언을 받았으며 지도교수의 조언 및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실행과정

본 연구는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서의 교사 역할 지원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아 수준에 적합한 역사교육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실행과정이다.

#### 1) 1차 실행 :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한 지원

행복어린이집 즐거운반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주로 실외 활동을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공원의 형태가 아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유아들은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었다.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이름을 명확히 알고 있으나 그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즉, 역사문화유적지에서의 대부분의 활동은 산책하며 돌아보거나 계절에 따른 나무, 꽃과 나뭇잎의 변화를 느껴 보고 비둘기를 쫓아다니며 뛰어 노는 활동이었다.

행복어린이집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탐방활동 방법 지원을 위한 실행을 계획하였다. 1차 실행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의 관심과 흥미 증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자와 교사는 행복어린이집이 자주 접하는 역사문화유적지를 선정

하였고 탐방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적지 내 유물과 보물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은 즐거운반의 일과운영에서 매일의 실외활동 중 주 1회 실시하였다. 교사와 유아들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탐방 할 수 있도록 사전 활동-본 탐방활동-사후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교사는 소그룹으로 조를 구성하여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탐방활동을 참여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유아들이 유물과 보물에 대해 또래들과 의논하며 탐방 할 수 있도록 활동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교사는 유아들이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방 할 수 있도록 활동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해주며 유아들의 역사적 지식 증진을 위한 구성자의 역할을 하였다.

#### **(1)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선정 및 관련 자료 제공**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계획해서 실행해야 할지 막막해 하였다. 교사와 유아들은 기존에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생활주제에 따른 실외활동이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교사는 그곳에 대한 역사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교사면접에서와 같이 교사는 새로운 탐방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사로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제가 역사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약간의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용기를 내서 교사로서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아들과 역사교육을 하기에 앞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교사면담 4. 3.)

이에 연구자는 교사가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에 대해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관련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을 지원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탐방활동의 1차 실행 장소로 협의하여 선정된 곳은 행복어린이집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자주 방문하는 탑골공원이다. 연구자는 교사에게 탑골공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 안에 있는 유물과 보물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현장 답사를 제안했다. 사전 현장 답사에서 연구자와 교사는 전체적인 탑골공원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사진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유물, 보물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사전, 서적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함께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효율적인 탐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였다. 교사는 탑골공원 내에 보존되고 있는 유물과 보물이 교사가 생각한 것 보다 많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인 유물을 통해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것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졌다.

연구자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의 장소로 선정된 탑골공원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3·1운동의 출발지이자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이 살아 숨 쉬는 유서 깊은 곳이다. 또한 탑골공원으로 조성되기 이전 원각사 절이었고 원각사 창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와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이 있다. 이 외에 해시계 받침돌인 양부일부가 보존되고 있다. 이처럼 탑골공원은 역사문화유적지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유물과 보물이 보존되고 있었다. 다음은 사전 현장 답사를 다녀온 후 교사의 심층면담의 일부내용이다.

탑골공원의 사전답사 후에 유아들과 역사의 배경을 어느 부분까지 알고 활동으로 계획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유아들과 역사적 사실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실행해야 할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탐골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에 원각사 절이 있었고, 그 절이 있었다는 상징으로 유물들이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성종 때부터 고종까지 정말 방대하더라구요. 그래서 탐골공원에서는 시대적 인물보다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유물, 보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연관 지어 계획해 보려고 해요.

(교사면담 5. 14.)

위의 교사면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탐골공원의 유물과 보물들은 교사가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역사적 배경이 방대하였다. 때문에 교사는 탐방활동에서 탐색하고자 한 유물과 보물의 역사배경을 어느 부분까지 교육계획으로 세워 활동으로 연계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탐골공원의 구체적인 유물과 보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탐색하며 유아 스스로 역사지식을 구성해 갈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였다. 연구자는 탐방계획서를 제공하였고 교사는 이를 토대로 활동자료를 작성하여 유아들과 탐골공원 탐방을 실행하였다.

연구자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탐방활동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교사는 유아들과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주 1회 1시간 정도 실행하였고, 탐방활동을 위하여 사전활동으로 이야기나누기 및 표상활동을 계획하였으며 사후활동으로는 탐방활동에서 알게 된 구체적인 유물과 유적을 조형활동, 언어활동, 역할놀이 등으로 확장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흥미영역 활동자료 및 교재교구를 제공하였다.

## (2)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탐방활동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에 속한 역사문화유적지는 교사와 유아들이 그동안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친근하게 활동하였던 장소였기에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탐

방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되었다. 연구자는 유아들이 역사문화 유적지에 흥미를 가지고 탐방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교사와 유아들이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자주 찾았던 탐골공원으로의 탐방 계획이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교사의 사전 현장 답사 이후 연구자는 교사에게 유아들과의 탐골공원 사전 탐방을 제안했다. 교사는 유아들과 탐골공원에 대하여 사전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정보를 나누었고, 탐골공원을 둘러보며 유아들과 유물과 보물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유아들과 탐골공원에 자주 갔어도 그곳이 역사문화유적지로서 유물과 보물이 그렇게 많이 보존되어 있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 이곳이 탐골공원! 옛날에는 파고다 공원이라고 불리었던 곳! 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 답사 갔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유물과 보물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관심이 없었을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유아들과 사전 이야기 나누기 하고 가서 보물1호 보물3호 등의 유물들을 찾으면서 탐골공원에 대해 새롭게 알고 느끼게 되었어요.

(교사면담 5. 14.)

교사의 면담에서처럼 일과운영 중 자주 찾던 곳에서 교사가 생각하지 못하던 유물과 보물의 발견은 교사에게 탐방활동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역사문화유적지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탐방활동을 하도록 조별활동을 계획하였다. 조별활동은 즐거운반에서 탐방활동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활동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혼합연령반인 즐거운반의 만 4세와 만 5세의 유아들을 같은 조별로 구성하였으며, 만 5세 유아가 조장이 되어 조원들과 의논하고 안내해 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때 교사는 탐방활동의 안내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교사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각 조의 조원들과 탐방활동과정에서

무엇을 알아보고 탐색해야 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활동자료를 탐방활동 시 마다 제공하였다. 다음은 탐방활동에서 교사와 유아의 대화의 일부내용이다.

승환: 다 쓰고 나 줘! 이거 이거 나 이거 봤어

(유림이에게 손가락으로 활동자료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한다)

시영: 다 썼어 이제 다른 거 찾으러 가자(활동지에 이름을 다 쓴 후 조원들에게 말하며 다른 장소로 움직일 준비한다)

성민: 다 썼어요 우리!

서윤: 우리도 다 썼다.(활동지를 들고 움직인다)

교사: 자 맞는지 우리 확인 한번 해 보고 다른 곳으로 가볼까?

조별로 뭘 찾을 건지 상의하는 건 언제 애들아?

<유림, 시영, 승환, 서윤, 성민이가 각자 또래의 손을 잡고 동상 앞 들 계단에 앉는다.>

교사: 조별로 앉아서 과연 우리가 뭘 찾아야 빨리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상의해 볼까? 그 다음엔 어디로 갈 건지 의논해보자

서윤: (손가락을 어디론가 가리키며) 저기로요 아 나 봤어

시영,성민: (활동자료의 사진들을 성민이와 함께 바라본다.)

교사: 같이 얘기 해 주는 거야

<활동자료 안의 사진을 찾아보던 시영이가 주변을 둘러보고 승환이의 손을 잡으며 움직인다.>

(탑골공원탐방 5. 21.)

유아들은 탑골공원의 유물과 보물이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활동자료를 참고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역사문화유적지에서 무엇을 찾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래들과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었다. 유아들은 여전히 또래 간 탐색해야 할 것에 대해 의논하기

보다는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나 조별로 이루어지는 탐방활동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탐골공원에 있는 우리나라 보물과 문화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직접 탐골공원에서 찾아본 후 유아들이 우리나라 보물과 문화 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어떻게 해서 보물이 되었는지, 보물들은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 그래서인지 교사도 각 보물과 문화 유적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저널 5. 21.)

교사의 저널에서 나타나듯 교사와 유아들은 탐방활동을 하면서 역사문화 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와 유아들의 관심의 증가는 단순히 유물과 보물을 찾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알고자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교사와 유아들은 역사문화유적지의 유물과 보물들을 자세히 탐색하고자 하였다.

역사문화유적지 탐골공원의 국보 원각사지십층석탑과 보물 대원각사비는 보존을 위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훼손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막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대원각사비 또한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까이에서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교사는 3·1운동과 관련된 유물들과는 달리 원각사지십층석탑과 대원각사비에 섬세하게 조각된 모양을 가까이에서 확인 할 수 없어서 아쉬워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유아들의 흥미를 높이고 유물과 보물을 좀 더 자세히 관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음은 교사가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내용의 일부이다.

교사: 원각사지십층석탑에 너희들이 말한 용 그림도 있고,  
또 무슨 그림이 있지요?

소윤: 사람그림!

교사: 응 사람그림도 있었는데 선생님도 자세히 못 봤어.

승환: 어 그림이 안 보였어요.

교사: 그림이 안 보였구나. 그러면 안 보이는 그림을 자세히 볼 수 있을 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서윤: 망원경!

교사: 어 망원경!

다민: 돋보기!

교사: 돋보기!

기현: 안경!

교사: 어 안경!

서영: 어 나도 안경!(쓰고 있던 안경을 빼서 보여주며)

교사: 맞아 서영이는 잘 볼 수 있겠네?

너희들이 말한 망원경, 돋보기, 안경으로 관찰 해 볼 수 있을 것 같애

(사건이야기나누기 5. 28.)

교사와 유아들은 유물과 보물의 사진과 실물을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유물과 보물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망원경, 안경, 돋보기를 준비하여 조별로 탐방활동을 실행하였다. 다음은 실제 도구를 준비하여 탐방활동 탐색과정에 적용한 사례이다.

교사: 잘 보이니 애들아?

유아: 네

교사: 뭐가 잘 보여?

성민: (망원경으로 보며)어 선생님 저기 부처님도 보여요

교사: 그래?

기현: 와 사람이 그려져 있다.

성민: 사람 아니야 부처님이야

교사: 부처님이야? 또 뭐가 있을까?

기현: 부처님이 왜 이리 많지?

다민: (십층석탑 앞 유리면에 가까이 가서 얼굴에 안경을 쓰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부처님이다.

인영: 어디?

다민: (안경을 쓴 채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3층에! 4층!

(탐골공원탐방활동 5. 28.)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아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유물과 보물을 탐색하는 과정은 유아들의 흥미를 좀 더 높여주었다. 유아들이 제시한 도구를 사용하여 유물과 보물의 모양을 더 자세히 탐색할 수는 없었으나 유아 자신들이 방법을 찾아내고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팔각정은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고, 그곳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유아들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시영이가 ‘선생님 이게 여덟 개예요’라고 말하며 팔각정의 지붕 안 쪽 부분을 세워 보고 그림을 관찰하였어요. 저는 팔각정 지붕 안쪽의 그림까지는 보지 못하였는데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질문을 해서 저도 새롭게 알 수 있었어요. 그 안에 그림이 각 마다 다 있었어요. 복숭아, 매화 모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유아들이 발견을 했어요. 단순히 우리나라 문양만 그려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림이 그려 있더라구요. 저는 주입하려고만 생각 했었는데, 유아들이 자연스러운 탐방과정에서 스스로 알아가고 있었어요.

(교사면담 5. 28.)

위의 면담사례에서 보듯이 교사와 유아들은 역사문화유적지의 구체적인 유물과 보물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증진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역사적 사실을 구성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능동적으로 탐방활동에 참여하면

서 자유롭게 유물과 보물을 탐색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며 역사적 사고의 경험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연구 초기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두려워 했었다. 그러나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하면서 유아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가졌다.

### (3) 탐방활동의 관심과 흥미 증진을 위한 지원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로 탐방활동을 계획하면서 유아주도적인 활동이 되도록 조별활동을 시행하였다. 이때 교사는 안내자, 조력자, 구성자의 역할을 하면서 유아들이 또래와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교사와 유아들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유물과 보물을 찾고 알아가는 탐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방활동으로 경험한 사실들을 즐거운반 교실 안으로 연계하여 확장활동을 하도록 제안했다. 교사는 탐방사후활동을 유아들이 조별로 탐방활동 하면서 경험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흥미영역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교사는 흥미영역에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와 관련된 사진과 활동자료 및 교재교구를 제공하였고, 유아들은 탐골공원 책 만들기, 탐 쌓기, 태극기 등을 만들어 보면서 자신이 탐방활동을 통해 경험한 지식들을 흥미영역에서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성민: 저는요 문화유적지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교사: 문화유적지를 직접 가서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성민: 네 그게 진짜 있는 줄을 나도 몰랐어요.

교사: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있는 줄을 선생님도 몰랐어요.

(사후이야기나누기 5. 21.)

위의 교사와 유아의 대화내용에서 나타나듯 유아는 역사문화유적지에서 구체적인 유물과 보물들을 보고 알아가는 탐방활동을 재미있어 하였다. 교사는 사후이야기나누기 시간을 마련하여 탐방활동을 하면서 유아들이 느낀 점과 조별로 활동했던 활동자료를 확인하며 경험나누기를 하였다. 유아들은 새롭게 알게 된 유물과 보물의 이름과 모양 등을 이야기 했으며, 특히 또래들과 함께 역사문화유적지를 탐방한 것이 재미있었다고 표현하였다.

유아들은 탐방활동에서 보았던 유물과 보물들을 흥미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다음은 유아가 쌓기영역에서 탑을 쌓으며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한 부분이다.

교사: 시영이가 만든 게 뭐예요?

시영: (소리 내어 웃으며) 원각사지십층석탑이요

<초록색 제일 밑 단, 그다음 빨강, 노랑, 파랑 그 위로 다시 연두, 초록, 노랑, 파랑, 빨강, 주황색으로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탑 모양처럼 좁혀서 블록을 꽂아 올렸다.>

시영: 이게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탑의 복원과정을 놀이로 표현함)

교사: 원각사지십층석탑은 몇 층일까요?

시영: (소리 내어 층수를 말하고 손가락으로는 블록의 층수를 가리킨다.)

일층, 이층, 삼층, 사층, 오층, 육층, 칠층, 팔층, 구층, 십층!

교사: 아 십층이라고 십층석탑이예요?

시영: 네

(쌓기영역활동 5. 26.)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유아는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놀이를 하면서 표현하고 재구성하고 있다. 블록을 사용하여 원각사지십층석탑의 모양을 만들고 원각사지십층석탑을 복원했던 과정을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었어요’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놀이로 확장하였다. 유아들은 탐방활동에서

구체적인 유물과 보물들을 탐색하며 새롭게 발견하고 획득하게 된 사실들을 흥미영역에서 놀이 활동을 하며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유아들은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리고 만들었으며, 또래 유아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만든 것들을 살펴보고 다음 탐방활동에서의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 (2) 1차 실행 반성

1차 실행 결과 교사와 유아들은 친숙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 유물과 보물을 발견해 낸다는 것에 흥미를 가졌다. 또한 사후확장활동들은 유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 시켰다. 또한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서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 조별활동에 흥미를 가졌다. 탐방 초기에는 또래들과 함께 하는 조별활동 탐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들은 조별로 진행되는 탐방활동에 점차 익숙해지며 유물과 보물을 탐색하고 또래 유아들과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능동적으로 탐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유아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탐방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는 유아들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유물과 보물을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탐방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지식들을 놀이를 통해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사후활동들을 제공해 주었고 유아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역사적 의미와 배경들을 구체적인 유물과 보물들을 중심으로 탐방활

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연구초기에 비해 역사교육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교사는 탐방활동에 흥미를 보이고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다. 이렇듯 교사와 유아들은 탐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역사문화유적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는 탐방활동에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감에 있어 구성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유아들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유물과 보물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도록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탐방활동에서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조별활동으로 인하여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흥미를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특히, 혼합연령 중 만 5세 유아들이 만 4세 유아들과 의논하고 알려주며 탐방활동 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들의 자율적인 탐방활동을 위한 활동자료는 유아 각 개인별로 제시되지 않아 갈등이 유발되었다. 다음의 사례에서 유아들의 어려움과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그러면 오늘 가서 힘든 거 있었어요?

시영: 어 저 친구들이 뛰면 넘어지는데 자꾸 제가 뛰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뛰어가니까 챙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연구자: 어 챙기기가 힘들었구나. 친구들이 자꾸 뛰어가서?

시영: 네

(유아개별면담 5. 21.)

<시영이와 유럽이에게로 같은 조원인 성민이와 승환이가 다가와 쓰는 것을 바라본다.>

성민: (활동지에 색연필로 글자를 적는 시영이를 바라보며)

의암 손병희라고 써!

<1조 조원 네 명이 서로 머리를 모아 이름을 적는다.>

승환: 다 쓰고 나 줘! 이거 이거 나 이거 봤어

(유림이에게 손가락으로 활동지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한다)

시영: 다 썼어! 이제 다른 거 찾으러 가자!

(활동자료를 들고, 조원들에게 말한다.)

...중략...

시영: 팔각정으로 가자!(승환이의 손을 잡고 이끌고 난 후 다시 서윤이의 손을 잡고 움직인다)

성민: 이거 줘! (시영이가 들고 있던 활동자료를 잡으며)

교사: 시영아 활동지 성민이에게 맡겼어!

(시영이가 성민이에게 활동자료를 건넨다)

(탑골공원탐방활동 5. 21.)

유아들은 또래와 함께 하는 탐방활동이 흥미롭고 즐겁지만 다른 유아들, 특히 만4세 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탐방의 즐거움 보다는 어려움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자유롭게 탐방활동에 참여하며 유물과 보물을 탐색하기보다는 조별로 제공된 활동자료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자와 교사가 1차 탐방의 역사문화유적지로 선정한 탑골공원의 유물과 보물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탑골공원은 유아들이 구체적인 유물과 보물을 탐색하고 역사적 사실을 알기에는 적합한 장소였으나 역사문화유적지의 장소와 역사적 유물이 유아들의 삶과 연계되지 못하여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유지하고 역사문화유적지의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2) 2차 실행 :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탐방활동과 또래관계 협력 지원

1차 실행 결과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는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선정하고 유아들의 자율성 및 또래 관계 협력 증진 탐방 활동에 초점을 두고 실행하였다.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역사적 의미를 유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또래 관계 협력을 통한 탐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별활동과 활동자료를 재조정하여 실행하였다.

### (1)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연구자와 교사는 유아들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 유아의 생활과 관련하여 역사적 장소와 유물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가 유아의 생활과 관련이 있으면서 자주 접하던 장소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탐방활동 계획을 제공하였다.

#### ①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적지 선정 및 관련 자료 제공

연구자는 즐거운반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 2차 실행 장소를 운현궁으로 선정하였다. 1차 탐방실행에서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유물과 보물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가며 관심과 흥미를 가졌다. 그러나 탐골공원의 유물과 보물들은 역사적 배경의 차이가 크고 유아들의 삶과 관련이 없어 유아들이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협의하고 장소를 변경하여 탐방을 계획하였다. 2차 실행 장소인 운현궁은 탐골공원과 동일하게 행복어린이집 즐거운반의 유아들에게는 친숙한 장소로 산책 및 실외활동을 자주 다녔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이다. 운현궁은 고종의

잠재이면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사저로 왕실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운현궁이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로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유아들이 옛 선조가 살았던 집에서 선조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때 당시의 물품들을 탐색하고 살펴봄으로서 현재의 우리 모습과 연결시켜 느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였다.

탐방활동의 장소 변경은 교사로 하여금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인 운현궁 탐방활동 전개에 대한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갖게 했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탐방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했다. 우선적으로 연구자는 교사에게 운현궁 해설사를 통해 운현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전 답사를 제안했다. 연구자와 교사는 함께 운현궁으로 가서 해설사를 통해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는 해설사의 모든 설명 과정을 녹음하였고 노트에 적으며 궁금한 것들에 대해 해설사에게 질문을 하며 운현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운현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연구자와 교사는 새로운 운현궁의 역사배경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협의하였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운현궁 탐방활동 계획을 지원하였다. 다음은 교사의 운현궁 탐방활동에서의 저널 내용의 일부이다.

나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운현궁'에 대해 사전답사를 다녀와서 알게 된 자료들과 홈페이지, 운현궁의 사진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보며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그래서 운현궁에 대해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있었다.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라는 단순함에서 조선 후기의 역사적인 장소와 역사 인물들이 직접 살았던 곳이라는 것에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교사저널 6. 18.)

교사는 운현궁의 해설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운현궁 설명서, 홈페이지, 문화재청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전체적인 운현궁의 역사적 의미와 건축 양식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운현궁 탐방에서 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운현궁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 ② 유아의 생활과 연계한 탐방활동 지원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인 운현궁은 조선시대 왕과 왕의 가족이 살았던 생활주거지로서 왕실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과거 역사적 인물들이 사용했던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유아들이 탐방활동을 통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연계하여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였다. 교사는 운현궁의 건축물과 운현궁에서 살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탐방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교사는 유아들과 운현궁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 운현궁에서 살았던 인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활동을 계획하였다. 또한 교사는 사전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운현궁의 인물들의 이름과 관계를 알아본 후 운현궁 내 역사유물 전시관을 관람하며 유아들이 운현궁의 인물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운현궁 인물들의 관계 이해를 위해 사용한 교사 전략을 볼 수 있는 교사저널이다.

유아들은 ‘홍선대원군, 고종, 명성황후’가 살았던 집이라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활동자료를 통해 ‘홍선대원군, 고종, 명성황후’의 관계를 알아보면서 남편, 아내, 시아버지, 아버지, 며느리, 아들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우리가족의 가계도를 활용하였다. 가족의 호칭을 알아보면서 세 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교사저널 6. 29.)

유아들은 운현궁 인물의 이름과 그 인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워했다. 교사의 저널에서 나타나듯 교사는 유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였고 교사는 유아들의 가족관계와 호칭을 연계하여 인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가계도 활동을 계획하였다.

유아들은 가계도 활동을 통해 운현궁에서 살았던 왕과 왕의 가족들의 이름과 관계를 알게 되면서 운현궁 탐방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운현궁 건축물의 이름에 대한 교사의 면담내용이다.

운현궁의 각 건축물의 이름도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탐방활동 전이라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의 이름만 알아보았는데, 운현궁의 각 건축물의 한자를 알아보고 한자의 뜻을 알아보며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름의 풀이가 있듯이 운현궁 건축물의 이름 뜻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사면담 6. 26.)

교사는 운현궁 탐방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유아들과 운현궁의 인물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운현궁의 건축물을 알아가는 탐방 계획을 세웠다. 교사는 유아들이 운현궁 안에 있는 4개의 건축물을 탐방 할 때 각 건축물의 이름을 활용하면 유아들과 흥미 있게 탐방활동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운현궁의 집은 수직사,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모양이 비슷해서 연구자와 교사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차이점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기본 건축물 구조는 비슷하면서 조금씩 그 집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교사는 유아들과 한자의 음과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뜻풀이를 통해 운현궁 집의 이름을 설명하였다. 유아들은 한자의 뜻풀이에 흥미를 가졌으며 탐방활동에서도 유아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자를 찾아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교사는 유아들과 운현궁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탐색하는 탐방활동을 마치고 사후활동으로 배치도를 그려봄으로써 전체적인 운현궁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배치도를 그리면서 집의 위치와 이름들을 기억하였고 운현궁 건축물의 이름 뜻은 탐방활동에서 유아들이 그 집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궁중의 드므처럼 운현궁에서도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준비해 둔 석지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유아들은 ‘석지’ 라는 단어는 어색해 했으나 운현궁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물을 받아 두는 곳이라고 이해하였다. 사전활동에서 석지의 모습을 확인 했던 유아들이 노안당을 탐방하는 중에 석지의 위치를 찾아 또래 유아들과 함께 탐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음은 교사와 유아들이 탐방 중 석지를 보며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성민 : 석지가 어디에 있어요?

교사 : 석지 한 번 찾아볼래요? 석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현 : (석지로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며) 여기! 물 담아 놓는 곳.

교사 : 석지 어떻게 생겼어? 모양은 어때요?

성민 : 근데 물이 안 고여 있네요?

교사 : 물이 왜 안 고여 있을까?

성민 : 지금이 여름이라서

교사 : 여름이라서.

병철 : 비가 오면 여기 물이 꼭 차요

교사 : 네. 그럼 석지가 뭐하는 것일까요?

서윤 : 물이 여기 차요

병철 : 불이 나면 물로 꺼요

서윤 : 물을 담아 놓아야 되요 그리고 동물들이 물 먹고 살아요

(유아들이 활동자료에 석지를 적고 있다)

기현 : 저는 물 밖에 못 썼어요

교사 : 물이라고 썼어요? 그래요 그게 힌트가 될 것 같네요

병철 : 선생님 물이 딱 찼어요(자신이 그린 그림을 교사에게 보여주며)

교사 : 물이 딱 찬 거 그랬어요? 그림을 잘 그렸네요.

자 석지 밑에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인지 보세요 무슨 모양을 그린 거 같아 애들아?

성민 : 물 그림!

교사 : 맞아 물방울 모양이네요

유빈 : 불 같아요

교사 : 불 같아요

(탐방활동 7. 2.)

교사와 유아의 대화에서 보듯이 유아들은 석지가 불이 나면 물을 사용해 불을 끄는 방화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본 석지에는 물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생각해보며 표현하였다. 교사와 유아들은 석지의 모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탐색하였고 유아들은 활동자료에 석지를 탐색한 것을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써 보았다. 유아들은 탐방활동을 마치고 어린이집에 돌아와서 소화기를 보며 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들은 유아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과거의 유물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관심을 가지고 비교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갔다.

운현궁의 수직사,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방 안에는 그 집들이 옛날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전시물을 통해 생활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재현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와 유아들은 집 내부의 모습과 전시물들을 확인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현재의 생활모습과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운현궁의 건축물 중 노락당은 ‘노년을 즐겁게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안채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특히 노락당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식이 이루어진 곳이다. 운현궁에서는 현재 지나간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잊혀져가

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부각시키고자 고종과 왕비인 명성황후와의 가례 행사를 재현하고 있다. 이에 교사는 유아들과 가례식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날의 결혼식과 옛 날 왕가의 가례식의 모습을 비교해 보며 역사문화유적지에서 행해진 의미 있는 활동을 표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탐방활동 중 운현궁에서 준비하는 가례식 재현행사를 볼 수는 없었으나, 교사와 유아들은 유물전시관과 동영상 자료를 통해 혼례복과 가례식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유아들의 가례식 역할놀이 모습이다.

승환 : 신랑 신부 입장!

세희 : (신랑, 무릎을 꿇으며)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준다)

<역할놀이를 하는 유아도 하객역할을 하는 유아도 서로 웃는다>

<신랑 세희와 신부 시영이는 한복 옷자락에 손을 모으고 놓으며 입장하고 서로 마주본다.>

기현 : (신랑신부 입장에 따라) 째따따단, 째따따단!

세희 : (신랑) 우리 결혼합니다!

세희, 시영 : (두 손을 마주잡고 춤을 추며) 째따따단, 째따따단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볼에다 뽀뽀를 한다.>

교사 : 왜 뽀뽀를 하는 거예요?

시영 : 결혼했으니까요.

세희 : (웃으며 얼굴을 가리며) 옛날에도 뽀뽀했잖아요.

세희 : (한참을 춤을 춘 후 신부의 손을 잡고) 우리 이제 갑시다!

시영 : 우리는 이제 함께 살러 가는 거예요.

(가례식 역할영역 7. 10.)

사례에서 보듯이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이 많은 결혼식의 모습으로 역할놀이를 하였다. 전통혼례의 방법이 유아들에게 생소하고 놀이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아들은 전통혼례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에 흥미와

즐거움을 표현했다. 유아들은 역할놀이를 통해 현재의 결혼식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과거에도 결혼식이 이루어졌고 왕의 결혼을 ‘가례’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다음은 유아들의 가례식에 대한 교사저널의 일부분이다.

유아들이 흥미 있어 하는 가례식을 위해 역할영역에 필요한 소품을 제공해주었다. 역할영역에서 가례식에 유아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다. 남자의 사모와 신발, 여자의 족두리와 신발이 유아들의 활동 참여와 호응도를 높이는 듯 하였다. 처음에는 남자 유아들은 쑥스러운지 역할영역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여자 유아들이 서로 남자와 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남자 유아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 까봐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자 남자 유아들도 의상을 입고 놀이에 함께 참여했다. 유아들이 오늘날의 결혼식과 전통혼례식에 대해 혼동되어 표현하였지만 과거와 현재의 결혼식의 차이에 대해 알게 된 활동이었다.

(교사저널 7. 9.)

교사저널에서 보듯 유아들은 과거 인물들이 입었던 옷과 가례식에 흥미를 가지고 역할놀이에 참여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혼례식의 모습을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즉,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서 유아들은 ‘가례’와 ‘전통혼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식과 모습은 변하였어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혼례’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활동을 통해 이해 할 수 있었다.

특히 운현궁은 운현궁에서만 볼 수 있는 문양이 기와와 담 벽에 새겨져 있다. 연구자는 교사와 유아들이 운현궁 기와의 문양과 그 문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였다. 교사는 운현궁을 상징하는 문양에 대해 흥미를 가졌으며 유아들에게 기와문양에 대한 활동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운현궁 탐방활동에서 유아들은 자신들의 손이 닿는 담 위 기와를 직접 만지며 기와 문양을 자세히 탐색할 수 있었다. 다음은 암기와와 수기와의 문양을 탐색하는 교사와 유아의 모습이다.

교사 : 노락당으로 가 볼까요?

기현 : 와 도깨비랑 박쥐 문양 있다.

(노락당으로 이동하는 중에 기와의 문양을 발견하였다.)

교사 : 어 그래 기와에 문양이 그려져 있네? 이곳 낮은 기와랑 저기 높은  
기와의 문양을 봐 즐래? 어때? 지붕은 뭐로 되어 있어?

기현 : 나무

성민 : 기와

교사 : 기와로 되어 있어 문양은 어때?

성민 : 용무늬 아니! 도깨비 무늬랑 박쥐무늬!

교사 : 도깨비무늬랑 박쥐무늬! 노락당까지 다 똑같구나.

나희 : 선생님 저기도 있어요(손으로 지붕 위를 가리키며)

교사 : 그래 그래 나희도 찾았네? 노안당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찾았구나  
...중략...

유아 : 박쥐!

교사 : 박쥐! 박쥐 날개는 어디 있어?

서윤 : 도깨비(손으로 도깨비를 치면서)

교사 : 어 도깨비. 도깨비 눈. 도깨비 뿔은 어떤 거 같애?

시영 : (손가락으로 뿔 모양 쪽을 만지며) 뿔!

교사 : 애들아 문양을 손으로 만져 봐봐

어떻게 생겼는지 손으로 만져봐도 되

시영 : 부드러운 거 같아요(손으로 도깨비 문양을 만지며)

교사 : 부드러운 거 같애?

성민 : (손으로 기와를 만지고) 오돌토돌한 거 같아요

교사 : 오돌토돌해?

나희 : 근데요 박쥐 문양이 나비 문양 같아요!

교사 : 박쥐 문양이 나비 문양 같애? 어디가? 날개가?

나희 : (고개를 끄덕인다)네

교사 : 아 그렇구나!

(탐방활동 7. 23.)

교사와 유아들은 기와에 새겨진 문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 보며 자세하게 탐색하였다. 유아들은 손으로 느껴지는 기와의 촉감을 언어로 표현하며 운현궁의 모든 기와가 박쥐와 도깨비 문양으로 동일한 것을 자유롭게 탐방하며 확인하였다. 유아들은 직접 만져보고 탐색한 기와의 문양을 탐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며 또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교사는 기와 문양 이외에도 운현궁을 상징하는 문양들을 알아보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운현궁을 상징하는 배꽃무늬와 태극기의 건곤 감리 무늬들을 찾을 수 있도록 활동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유아들은 운현궁의 이곳저곳을 탐색하며 마치 놀이터에 숨겨있는 보물을 찾듯 신나하였다.

또한 교사는 유아들이 자신의 활동자료를 보며 찾아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며 유아의 흥미와 자율성을 격려했다. 교사는 건축물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그려져 있는 무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문양에도 운현궁을 상징하고 있고 왕실의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활동을 하며 새롭게 알게 되었다.

## **(2) 유아 자율성 및 또래관계 협력 증진 지원**

연구자와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서 유아 자율성을 가지고 또래관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협의하고 계획하였다. 즐거운반은 만 4세와 만 5세 유아들로 구성된 혼합연령반으로 교사는 1차 실행에서 만 4세와 만 5세 유아들을 혼합하여 조를 구성하였고 탐방활동에 있어서 만 5세 유아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혼합연령으로 조를 구성하여 탐방을 실행했을 때 유아들이 부담을 가지는 문제점이 나타났기에 연구자는 교사에게 유아들의 연령에 따라 만 5세 유아로

이루어진 조, 만 4세 유아로 이루어진 조를 구성하여 연령별로 자유로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활동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자는 유아들에게 조별로 제공했던 활동자료를 유아 개인 수준별로 난이도를 조정하여 유아 개인별로 활동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여 지원하였다. 즉, 탐방활동에서 유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또래와 협력하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유아 동일연령으로 나누어 4개조를 구성하였고, 매 탐방 때마다 조원들을 유아의 의견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실행하였다. 탐방활동자료는 운현궁에 관한 유물, 인물, 건축물 등을 사진으로 제시해 주고, 유아들이 탐방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그림이나 글로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탐방활동자료는 유아 개인별로 준비하여 탐방활동에서 유아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였다.

유아들은 새로운 탐방활동 장소에 대해 무엇을 하게 될지 기대를 나타내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역사문화유적지의 역사적 의미를 유아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탐방을 계획하였다. 다음은 교사가 유아들과 탐방활동을 마치고 난 후 작성 한 교사저널의 일부이다.

만 5세 유아로 구성된 조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견을 모으는 모습이 보였다. 같은 연령별로 조를 구성하니 조장의 역할을 한 만 5세 유아들이 만 4세 유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어려움을 느껴하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조를 나눈 후 운현궁에서는 동일연령 또래와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며 활동하는 모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교사저널 6. 25.)

교사의 저널에서처럼 유아들은 운현궁에서의 탐방활동에서는 동일연령으로 구성된 조별 활동 이후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유아들은 동일연령의

조원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탐방활동을 하였다. 또한 교사는 활동자료를 유아들에게 개인별로 제공하였는데 유아들이 자신의 활동자료를 보며 탐색하고자 하는 것을 찾기도 하고 조원 또래들에게 의논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유아의 활동자료를 확인하면서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3) 2차 실행 반성

2차 실행의 결과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유아들의 생활과 연계하여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교사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면서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자신감을 가졌다. 또한 교사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역사 지식의 획득으로 인하여 탐방활동에 적극성을 보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탐방활동이 되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유아들이 또래와 의논하며 유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안내해 주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2차 실행에서 유아들은 동일연령으로 구성된 조별활동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탐방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탐방활동에서 알게 된 역사적 사실들을 또래와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력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서의 활동 내용이 유아 자신들의 삶과 연계되었을 때 더 쉽게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였고, 새로운 역사 지식의 발견과 지식의 획득을 또래와의 놀이를 통하여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유아들과 탐방활동을 통해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유물을 탐색하고 그것을 유아 자신의 삶과 관련된 역사적 활동들로 연계하면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가 유아역사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 2.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변화

### 1)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행복어린이집 즐거운반의 교사는 유아들과 지역사회에 속한 역사문화유적지로 탐방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행복어린이집의 물리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생활주제와 연계된 실외활동을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실시하였으나, 교사는 탐방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친숙하게 접하였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 교사는 일과운영 중 실외활동을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연계하여 실행하였지만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관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탐방활동을 계획하면서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교사저널의 일부내용이다.

어린이집 주변 가까이에 역사문화유적지와 그 안에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물과 보물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 유물과 보물의 이름과 특징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자긍심이 생겼다.(중략) 탐골공원하면 단순하게 노인들의 휴식처란 강한 인상이 남는데 나의 선입견이 강했음을 알게 되었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유적과 보물이 있는 탐골공원을 어떻게 보고, 보존해야 하는지 후손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전달할 것인지 생각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교사저널 5. 28.)

위의 사례에서 1차 실행의 장소인 탐골공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 수 있다. 교사가 탐골공원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보다는 어른들의 휴식처라는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연구 초기 교사는 탐골공원

으로 탐방활동을 계획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유아들과 활동을 해야 할지 부담을 가졌다. 그러나 교사는 탐골공원을 역사문화유적지로 바라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탐골공원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운현궁을 우리나라의 단순한 '고궁'이라고 생각할 때와는 달리 역사문화유적지탐방이라는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 유아들의 생각과 모습이 달라졌다. 이야기 나누기에서 보았던 운현궁의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찾은 것을 탐색하며 자신이 그것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보이기도 했다.

(교사저널 6. 29.)

위의 사례에서 보듯 관점의 변화는 교사에게서만이 아니라 유아들의 탐구하는 태도로도 나타났다. 유아들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단순히 '고궁'과 '옛날 집'이라고만 알고 활동 했을 때와 운현궁의 역사적 의미에 흥미를 가지고 탐방했을 때 유아들의 탐구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교사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역사 지식획득을 통해 역사교육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였다. 또한 교사와 유아들이 역사문화유적지에 관심과 흥미가 증진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내는 모습의 변화가 나타났다.

## 2) 적극적으로 지식 구성하기

교사는 연구 초기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로의 탐방활동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실행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교사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도전이 필요했다. 교사는 역사적 지식의 부족과 탐방활동을 실행함에 있어 유아들과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가

고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하였다. 연구자는 역사문화유적지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교사가 역사 지식을 획득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탐방활동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다음은 교사의 탐방활동 계획에 대한 교사저널이다.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어떤 시대의 유적인지, 누구와 관련된 유적인지 등이 궁금해졌다. 평소에는 '역사'하면 어렵고 외워야 하는 것들이 많고, 복잡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라는 장소는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에 친근감이 들었다.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지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었고, 유래와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사전 답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교사저널 3. 22.)

위의 교사저널에서 나타나듯 교사는 평상시 자주 찾아갔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과운영의 과정과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교사의 탐방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은 형식적인 활동으로 그쳤을 것이다. 교사는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알아가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탐방활동으로 실행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서로 협의하며 실행하였지만 탐방활동이 진행되면서 교사는 주체적으로 역사적 지식을 획득하고 알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

유아들은 또래와 함께 어울려 유물과 보물을 찾아 탐색하고 무엇을 찾을 것인지 또래와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으로 탐방활동에 참여하였다. 유아들은 탐방활동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하고 실행해 보면서 또래 간의 상호작용과 표현의 방식이 늘어남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교사저널을 통해 본 유아들의 탐방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탐골공원에 가기 전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탐골공원에 있는 보물과 문화유적지를 좀 더 자세히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유아들은 망원경, 돋보기, 안경 등을 이용하여 보면 작은 부분이나 조각, 그림 등을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중략) 탐골공원에서 유아들은 또래와 함께 자신들이 찾은 도구를 활용하여 유물을 탐색하였고, 유아들이 문화유적을 도구를 이용하여 살펴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교사저널 5. 28.)

유아들은 탐방활동이 진행될수록 새롭게 발견한 것들에 대해 알고자 하는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에서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 교사에게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래 유아들과 이야기 하고 유물을 탐색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였다. 특히, 유아들은 구체적인 사물과 유아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탐방활동 중 비석 앞에서 나눈 교사와 유아의 대화내용이다.

서윤 : 선생님 여기 번개 맞아서 비석이 세워졌데요

교사 : 번개에 맞아서 비석이 세워졌는데요? 무슨 나무가 있었는데요?

기현 : 소나무

...중략...

<유물전시관에서 소나무를 유심히 관찰하던 나희가 다른 곳에 있던 선생님에게 다가가 묻는다.>

나희 : 선생님 이게(나무 모형을 가리키며) 고종이 늘았던 나무예요?

교사 : 맞아요 고종이 늘았던 그 소나무래요

나희 :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소나무 모형으로 가서 살펴본다)

서윤 : 선생님 재미있었어요

(탐방활동 7. 23.)

유아들은 고종이 자신들처럼 어린 나이였을 때 운현궁 이로당 마당에서 유아들이 잘 알고 있는 전통놀이인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을 하며 놀이했다는 사실에 전통놀이에 관심을 가졌고 놀이에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유아들은 고종이 큰 소나무를 좋아했고 그 밑에서 책을 읽었다는 것에 흥미를 가졌다. 유아들은 지금은 볼 수 없는 소나무에 대해서 궁금해 하였고, 왜 소나무가 죽었는지, 소나무가 죽어서 비석이 세워진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고종이 놀았던 실제 소나무를 볼 수는 없었지만 운현궁 유물전시관에 모형 소나무를 통해 유아들은 소나무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관련 있는 사실들은 더욱 알고자 하는 흥미를 가졌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었다.

### 3)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기

연구자와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계획하면서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서로 의논하고 탐색하며 협력관계를 이루며 활동하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유아들이 중심이 된 조별활동을 실행하였고 유아들은 탐방 초기에 또래들과 의논하고 협력하여 탐색하는 것을 혼란스러워 했으나 점차 익숙해지고 유아 자신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알아갔다. 또한 탐방 초기에 유아들은 교사에게 의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탐방 후기로 갈수록 탐방을 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역사적 지식들을 질문하고 확인하며 구성해 갔다. 다음은 탐방활동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록한 교사저널이다.

무엇보다도 조별로 활동하면서 처음에는 화합되지 못했던 유아들이 서로에게 관심 가져 주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돋보기, 망원경, 안경 등

의 도구를 조별로 순서를 정하여 보기도 하고 도구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조원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조장들의 모습도 보기에 좋았다.

(교사저널 5. 28.)

위의 저널에서 보듯이 조별활동에서 유아들의 태도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 관람하고 탐색하는 것에 익숙했던 유아들이  
또래유아들과 함께 한 조가 되어 또래와 같이 무엇을 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의논하고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의 변  
화가 나타났다.

교사는 유아들이 탐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또래들과 함께 의논하  
고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내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다음  
은 유아가 운현궁의 문양을 찾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와 유아의 대  
화 일부분이다.

유아 : 배꽃 무늬

교사 : 배꽃 무늬 찾으러 가 볼까? 배꽃 무늬는 어디쯤 있을 것 같아?

성민 : 선생님 여기 뒤 쪽에 있는 거 같아요

교사 : 성민이는 노락당 뒤 쪽에 있을 것 같데 노락당 뒤 쪽에 정말 있는  
지 성민아 뒤 쪽에 보이니?

어 여기에는 없는데, 배꽃 무늬는 어디에 있는 거 같애?

성민 : 벽에 있는 거 같아요.

교사 : 그럼 우리 벽으로 가보자 여기는 문이 많으니까.

(탐방활동 7. 23.)

교사는 유아들이 역사문화유적지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  
면 될지 협력하며 유아들의 흥미를 유도하였다. 유아들은 역사문화유적지  
운현궁의 이 곳 저 곳을 둘러보며 문양이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하고 찾아보  
았다. 교사는 유아들의 의견에 따라 함께 탐색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의견

을 제시하고 수용하며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생각과 느낌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었고 유아들의 행동과 언어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사저널 7. 31.)

위의 교사저널에서 나타나듯 교사는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유아들의 탐색의 과정을 함께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은 유아들의 생각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에 따른 행동과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교사는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 역사적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시도하며 자신감을 가졌다.

#### 4) 역사탐방활동 재발견하기

행복어린이집의 교사와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생활주제와 연계된 실외활동 놀이를 했다. 교사는 탐방활동을 실행하면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일상생활에서 유아들과 역사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은 교사와 유아들에게 역사지식의 획득과 역사적 유물과 보물의 발견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에 관심과 흥미의 증가는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락당에 가보니 다른 건축물과는 다르게 부엌이 양쪽에 두 개로 설치되어

있어서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일상적으로 놀이하러 갔을 때는 궁금하지 않았는데 역사적인 장소로 유물과 유적을 활동으로 연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지고 궁금해 지는 것 같아요.

(교사면담 6. 26.)

교사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과 직접 역사문화유적지 운현궁 노락당을 탐방하면서 다른 건축물과 다르게 부엌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교사와 유아들은 노락당에서 양쪽에 위치한 두 개의 부엌 내부를 비교하며 탐색하였다. 교사와 유아들은 운현궁의 다른 건축물과 다른 부엌이라는 장소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의미들을 상세하게 알아갈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이 유아들은 사전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알아본 과거의 음식 보관 장소를 탐색하였다.

교사 : 여기는 뭘까?

기현 : 빙고 빙고

교사 : 빙고

기현 : 푹푹푹 여보시오 거기 누구 없소?(문을 두드리며 말한다)

교사 : 어 지금은 무엇이 채워져 있데?

유빈 : 열쇠

기현 : 어 자물쇠

교사 : 지금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뭐하는 곳이였을까?

시영 : 어 음식을 차갑게 하는 곳!

교사 : 음식을 차갑게 하는 곳! 요즘은 뭐라고 하지?

유빈, 기현 : 냉장고

유빈 : 창고 같아

(탐방활동 7.17.)

유아들은 사전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알게 된 음식 보관 장소를 이로당에

서 찾아 살펴보았다. 현재는 그곳을 자물쇠로 잠가 두며 관리하고 있어서 내부의 모습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유아들은 운현궁의 과거 음식 보관 장소와 빙고 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의 역할이 현재의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운현궁 문양을 찾는 교사와 유아의 대화 일부분이다.

전통 문양에 대해 알아보기 전까지는 교사는 벽과 문, 담에 있는 문양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유아들은 곳곳에 보이는 문양들에 관심을 보이며 교사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중략) 유아들은 운현궁 곳곳을 돌면서 문양 찾기에 분주함을 보였다. 벽, 담, 지붕에 있는 문양들을 전에는 지나쳤지만 문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모양과 색들에서 운현궁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전통 문양을 찾는데 조별로 활동하면서 서로 찾은 것을 알려주고 이름을 써보며 협동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교사저널 7. 23.)

위의 사례에서 보면 교사와 유아들은 역사문화유적지 운현궁의 전통문양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는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고 그 문양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 교사와 유아들은 운현궁 건축물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그려져 있는 무늬라고만 생각했는데 모든 운현궁 건축물의 문양에는 왕실의 역사적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탐방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 유아들은 숨은그림찾기 활동을 하듯이 운현궁의 건축물들을 탐색하였고 유아 자신이 찾은 문양들을 활동자료에 기록하면서 또래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유아들은 운현궁의 문양을 탐색하면서 각각의 문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은 나와 유아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문

화유적, 보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였고 역사를 보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탐방활동을 하고 평가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유아들의 관점과 생각을 중요시하며 활동으로 재창조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교사저널 7. 31.)

교사는 유아들이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음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해들을 수 있었다. 부모님들은 유아들이 역사문화유적지에서 보고 알게 된 역사적인 유물과 보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인물과 용어들을 친숙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자녀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또래들과 함께 하는 탐방활동을 어린이집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즐기고 확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앞으로 유아들과 활동 방향을 의논하면서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재창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해 연구자와 교사가 인식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연구이다. 의미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위해 2015년 5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주 동안 계획한 실행 및 평가를 거듭하면서 의미 있는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실행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갔다.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실행하면서 교사와 유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실행 과정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와 교사는 전년도 교육활동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2월에서 3월까지 연구자와 교사가 실외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평가하였고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저널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기관이 속한 지역 내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적지 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의 역사적 지식 및 관심의 부족과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으로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방안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일상

생활과 친숙한 장소에서 생활과 연계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탐방활동의 계획을 유아들의 타고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는 유아를 위한 역사교육은 유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반영할 때 교육적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이영자 외, 2001). 행복어린이집 즐거운반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2차에 걸쳐 실행하였다.

첫째, 1차 실행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안에 초점을 두고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탐방활동을 위하여 연구자와 교사는 유아 조별 활동에 대해 협의 하였고, 탐방활동자료를 계획하였다. 유아들은 친숙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유아 조별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탐방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유아 조별 탐방활동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공된 활동자료를 유아들은 또래와 함께 의논하며 탐방의 안내자료로 활용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탐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들의 조별 인원을 소그룹으로 구성하였고, 탐방활동에서 유아들이 활용할 활동자료를 제공하였다. 탐방활동 후에는 유아들은 사후활동의 흥미영역과의 연계 활동으로 책 만들기, 역할놀이, 공원 구성하기 등으로 확장하여 활동에 참여하였다.

1차 실행의 결과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친숙한 장소였기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탐방활동을 하였다.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구체적인 유물과 보물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 유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에 관하여 흥미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역사적 자료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직접 경험을 통해 유아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지식을 구성한다는 연구결과(서혜전, 2008)와 유사하다. 즉, 유

아들은 유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유물들을 탐색할 때 역사적인 특징을 더 잘 이해한다(남은경, 2007). 이는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통해 역사유적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성·역사성·지역성의 특성을 알고, 유적·유물이 인류에게 교훈을 주는 교육적 존재가치로서 지적육구의 충족이 가능하다(박명희, 1994; 신지은, 2005).

따라서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탐방활동은 유아들의 타고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문화유적지의 유물을 능동적으로 찾고 궁금증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과 탐구심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유물과 보물에 대해 질문을 하고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증가했다. 이는 강산과 윤덕순(2008)이 유아역사교육이 문화재 현장 학습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과 사고력의 발달을 도왔다고 밝힌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유아들의 탐방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진 하기 위한 지원으로 사전활동 및 탐방활동, 사후활동의 확장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역사문화유적지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개념과 사실들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흥미영역에 교재교구를 제공하고 벽면에 관련 사진과 자료를 게시해 주었다. 즉, 교사가 신중하게 선택하여 제공하는 역사학습자료는 개별 유아의 반응을 촉진시키고 유아들이 또래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와 같이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역사에 대해 탐구하는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장소와 역사적 유물이 유아 자신의 생활과 연계되지 못하여 유아들의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유지하고 탐구하는데 한계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유아들이 역사문화유적지 탐

방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유지하고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개별적 흥미를 고려한 탐방활동의 지원이 요구되었다.

2차 실행에서는 연구자는 유아들의 생활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적지를 선정하여 유아들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역사적 의미를 유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확장하여 지원하였다. 이에 유아들은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이 살았던 장소를 탐구하고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비교하여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즉, 역사교육을 위해 유아교육기관 주변의 일상 생활공간, 문화와 전통,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에서(하미현, 2001; 백정미, 2002), 유아들이 역사 유물을 직접 관찰 하고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경험함으로써(김남희, 2001) 유아들이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증진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가 유아들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역사학습의 장소가 된다(이한규, 2004)는 견해와 부합된다. 유아들은 1차 실행 때 보다 자신의 생활양식과 비교하여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의 양이 많아졌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탐구 태도의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서 유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또래와 협력하여 역사적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여 지원하였다. 교사는 유아 조별과 활동자료를 재조정하여 제공함으로써 유아들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탐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아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게 스스로 역사적 지식을 구성하며 탐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유아들은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이 생활했던 장소와 그들이 사용했던 생활도구들을 탐색하면서 자신과 또래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이 증진되었고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이는 유아들이 역사적인 현장에서의 행동이나 체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자발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유아

의 역사적 사고력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정여진, 2015)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2)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변화

행복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실행하였다. 탐방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교사와 유아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역할 지원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유아역사교육의 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인 측면을 인지하면서 역사교육 활동에 대한 관점에 변화를 보였다. 연구초기 교사는 역사지식의 부족과 유아들과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위한 역사교육의 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염려하였으나, 역사문화유적지의 구체적인 유물과 유적을 탐색하면서 점차 역사적 사실들을 자신 있게 접근해나갔다. 이는 교사가 유아역사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및 수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역사교육의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전환이 의미 있는 유아역사교육을 가능케 할 것(이혜림, 2008)이라는 견해로 설명 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탐방활동에서 역사 지식을 유아들에게 단순하게 전달하기 보다는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내해 주는 협력자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계획하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과 함께 지식을 구성해가는 구성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변화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새로운 유아역사 교육의 학습활동 장소로 활용하여 유아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탐구 할 수 있었다. 즉,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은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탐색하는 탐구학습이 용이하고, 그 유적지가 만들어진 시기와 시대적 배경에 대한 교사의 탐구하는 욕구를 증가시키고 확산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문화재청, 2000).

둘째, 교사 역할 지원 실행과정에서 유아에게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구체적인 유물과 유적을 탐색하면서 추상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유아들은 조별 활동을 통해 그들 자신이 알게 된 역사적 지식들을 또래와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탐방활동의 주체가 유아 자신임을 인식하였다.

유아들은 탐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궁금한 사실들을 직접 탐색하고 문제해결 하면서 유아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춰 역사 지식을 구성해 가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유아들이 탐방활동을 통해 탐색한 역사적 사실들을 교사가 제공해준 교재교구와 활동을 하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역사적 지식을 재구성해 나갔다. 탐방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역사에 대한 사실들을 또래와의 협동 활동을 통해 함께 구성해 갔으며 자신의 생각과 또래의 생각을 공유하며 역사적 사고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서의 역사교육은 유아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역사적 상징성들을 탐색하였을 때 유아들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들을 더 잘 이해하였다. 즉, 지역사회를 활용한 유아역사교육은 문화재, 유적지, 사료 등의 지역사회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학습하는 것이며, 역사의 증거가 주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밝힌 연구결과(윤은미, 2010)와 유사한 관점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은 과거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5b)

본 연구는 교사와 유아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지역사회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활동 통해 역사적 의미와 역사적 지식 증진 및 가치관 변화(이명진, 1998)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어린이집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탐방활동 방법을 계획하여 2차에 걸쳐 교사 역할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1차 실행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의 관심과 흥미 증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자는 행복어린이집이 자주 방문하는 역사문화유적지를 선정하였고 유아들이 탐방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적지 내 유물과 보물을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탐방활동의 방안으로 사전 활동과 사후활동을 계획하고 유아 조별을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역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탐방 할 수 있도록 활동자료를 제공하였다.

1차 실행 결과 교사와 유아들은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에서 유물과 보물을 발견하였고 탐방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상호작용이 증진되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유물과 보물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하였을 때 유아들의 생각과 의견을 탐방 과정에 반영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탐방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역사지식을 흥미영역에서

확장하여 원각사지십층석탑 쌓기, 탑골공원 꾸미기, 유물과 보물 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구체화 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장소와 역사적 유물이 유아 자신의 생활과 연계되지 못하여 유아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흥미를 유지하고 탐구하는데 한계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유아들이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에 흥미를 유지하고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개별적 흥미를 고려한 탐방 활동의 지원이 요구되었다.

2차 실행에서는 1차 실행 결과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와 교사는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선정하여 유아들의 자율성 및 또래 관계 협력 증진 탐방활동에 초점을 두고 실행하였다. 연구자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의 역사적 의미를 유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또래 관계 협력을 통한 탐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별활동과 활동자료를 재조정하여 실행하였다.

2차 실행의 결과 유아들은 1차 실행 때 보다 자신의 생활양식과 비교하여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의 양이 많아졌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탐구 태도의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서 유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또래와 협력하여 역사적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여 지원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탐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아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게 스스로 역사적 지식을 구성하고 탐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유아들은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이 생활했던 장소와 그들이 사용했던 생활도구들을 탐색하면서 자신과 또래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둘째,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유아역사교육의 교육적 가치의 측면을 인지하고 역사교육 활동에 대한 관점에 변화를 보였다.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계획하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과 함께 지식을 구성해가는 구성자의 역할을 하였다.

유아들은 조별 활동을 통해 그들 자신이 알게 된 역사적 지식들을 또래와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탐방활동의 주체가 유아 자신임을 인식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탐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궁금한 사실들을 직접 탐색하고 문제해결 하면서 유아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춰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즉, 유아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중에 접하는 친숙한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을 하면서 또래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며 역사적 의미와 역사적 지식 증진 및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행복어린이집 만 4세, 5세 혼합연령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에 대해 유아의 발달 수준과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유아들의 탐구하는 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라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역사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탐구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아역사교육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중에서 현장학습방법과 유아의 흥미와 관심 증진에 초점을 두고 탐방활동을 실행하였기에 유아역사교육의 내용 구성이 확장되지 못했고 지속적인 실행에 따른 교사와 유아의 변화를 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역사문화유적지를 활용하여 유아역사교육의 역사적 개념 내용을 확장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역사교육에 초점을 두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상, 윤덕순(2008). 향토문화재 현장학습을 활용한 역사교육이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열린 유아교육연구, 13(4), 379-400.
- 강선주(2006). 역사 수업에서 자료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한 유물·유적 활용방안. 경인교육대학교기전문화연구소, 33.
- 교육인적자원부(2005a). 유아를 위한 역사교육 활동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5b). 유아를 위한 환경보전교육 활동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사와 유아를 위한 유아사회교육 활동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국립문화재연구소(2002). 한국고고학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편집부.
- 권이종(1996). 현장학습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남(2012). 동화를 활용한 역사교육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조망수용 능력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남희(2001). 현장학습 유아의 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2002). 역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유추의 활용 가능성 탐색. 역사교육, 83, 1-33.
- 김명화, 류혜숙(2011). 극화활동을 통한 역사교육이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5, 403-422.
- 김명희(2008). 유아교육 기관 현장학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사인식 연구.

-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3).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의 실태 및 실천 방안 연구.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2). 역사교육에 있어서 박물관의 활용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수(2014). 만5세 학급에서의 역사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 방안에 대한 실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12). 자녀의 유치원 생활 및 교육 이해를 돕기 위한 부모교육 실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은(2014). 만 5세 유아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의 관한 실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1). 유치원 과학영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실행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희(2010). 원시시대를 주제로 한 역사경험 활동이 유아의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중(1994). 역사학습에서의 상상적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한중(2008).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8, 229-261.
- 김혜진(2005). 의미탐색을 통한 역사교육활동이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운(1998). 문화유적지를 관광하기 위한 모색. 문화예술, 115, 20-24.
- 김효식(2012). 한국의 옛 건축그림 표현방식을 적용한 안내도 디자인 연구 : 운현궁 안내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연(2004). 실행연구자(action researcher)로서의 유아교사: 유아교사의

-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교. 유아교육연구, 24(6), 234-255.
- 남은경(2007). 향토문화재를 활용한 초등학교 전통미술 지도 방안 :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재경(2005). 종로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혜숙, 김명화(2009). 위인동화를 활용한 역사교육활동이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3(5), 331-350.
- 문화재청(2000). 문화재 교육의 이론·방법 및 실제. 대전: 문화재청.
- 박명희(1994). 역사유적의 관광매력성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6, 9-22.
- 박소라(2014). 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파크형박물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미(2011). 역사이야기 그림책을 통한 교육이 유아의 역사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2010). 역사문화유적지로서 경복궁 매력속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2011). 역사문화유적지 매력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 경복궁 방문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옥, 서동미, 엄은나(2010). 유아사회교육. 경기도: 정민사.
- 배장오(2008). 현장연구방법. 고양: 서현사.
- 백령(2005).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과 교육. 서울: 예경.
- 백정미(2002). 유치원 현장학습의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전(2008). 박물관을 활용한 프로젝트접근법이 유아의 사고양식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153-175.

- 성선재(2008). 전통문화를 활용한 역사교육 활동이 유아의 역사개념과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은(2005). 역사문화관광지의 교육적 효과 분석 : 창덕궁 방문자의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정희(2008). 유아의 지역사회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혜자(2006). 역사교육활동이 유아의 국가 정체 형성과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미(2010). 강화도 지역의 현장학습을 통한 향토사 교수학습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현(2011). 문화재 현장학습이 초등학교 역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영(1998). 21세기형 문화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지역의 가치보존과 경관계획. 신라학연구소 논문집, 2.
- 이명진(1998). 관광지의 교육성 측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특별호, 22(2), 338-343
- 이명희(2006). 유아기의 역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실시현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자(1998). 연표학습활동이 5세 유아의 역사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자(2014).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 유효순, 이정옥(2001). 주제중심의 통합적 접근방법에 의한 유아사회 교육. 서울: 교문사.

- 이영자, 이기숙(1986).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서울: 창지사.
- 이용숙, 김영미, 김영천, 이혁규, 조덕주(2004).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한 연구와 교육실천의 연계성 강화-교육대학원 논문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2(1), 363-402.
- 이원순, 이정인(1985). 역사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정음문화사.
- 이은화, 김영옥(2010). 유아사회교육. 서울: 양서원.
- 이한규(2004). 지역 사회 이해를 위한 현장학습방안: 전라북도 정읍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림(2008). 역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소정(2011).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유아들의 경험에 대한 실행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경(2007). 유아역사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화(2002). 박물관 현장학습 활동이 유아의 전통문화 인지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유아교육학회.
- 전해철(2004). 유아교육기관의 현장학습 효율성 고양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채(2009). 역사문화유적지의 교육성·브랜드가치·선택속성이 관광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선영(2001). 역사교육의 이해. 서울: 삼지원.
- 정선영, 김한중, 양호완, 이영효(2002). 역사교육의 이해. 서울: 창지사.
- 정승혜(1990). 중학교 국사교과에서의 향토사 학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여진(2015). 체험중심 역사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시간개념과 역사적 사

고려 및 역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순옥, 이경화, 배인자, 이정숙, 김정원, 민혜원(2010). 유아사회교육. 서울: 창지사.

최완기(2002). 역사교육과 학습내용의 선정. 서울 : 느티나무.

하미현(2001). 유아 교육기관의 현장견학에 대한 유아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숙영, 김사현(2007). 유산과 유산관광의 개념에 관하여. 관광학연구, 31(3), 209-223.

현은순(2014). 생활사 중심의 유아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arton, K. C. (2002). "Oh, that's a tricky piece!": Children, mediated action, and the tools of historical time.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3(2), 161-185.

Breadkamp, S., & Rosegrant, T. (1995). Reaching potentials : *Transforming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assessment*(Vol.2). Washington, DC : NAETC.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cognitive development: Research models and fugitive findings. In Wozinak, R. H. & Fisher, K.(eds), *Scientific Environments*. Hillsdale, NJ; Erlbaum.

Cooper, H. (1995). *history in the early years*. London. UK: Routledge.

Dewey, J. (196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London: Collier-Macmillan.

Ellis, A. K. (1995). *Teaching and learning elementary social studies*.

Boston, MA: Allyn and Bacon.

Hallam, R. N. (1970). *Piaget and thinking in history in martin ballard: New movements in the study and teaching of history.*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Hoge, J (1996). *Effective elementary social studies.* Belmont, CA: Wadsworth.

Maxim, G. W. (2004). 살아있는 사회과 교육[Dynamic social studies for elementary classroom (7th ed.)]. (최용규 외 공역). 서울: 학지사.(원본발간일 2003년).

Melendez, W. R, Beck, V, & Fletcher, M. (2000). *Teaching social studies in early education.* Albany, NY: Delmar.

Seefeldt, C. (2000).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 / Primary Child* (6th Ed). New Jersey : Merrill Prentice Hall.

Seefeldt, C. (2005).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 primary child*(7th Ed). New Jersey : Merrill Prentice Hall.

Seefeldt, C., Castle, S., & Falconer, R. C. (2009).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primary child*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Seefeldt, C., Castle, S., & Falconer, R. C. (2010).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primary child* (8th ed). Upper saddle river. Boston: Merrill.

# ABSTRACT

## **Action Research on Visits to Community Historic and Cultural Sites with Young Children**

Lee, Young-a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aimed at improving teaching· learning method by comprehending the problems related to regional society historic cultural sites visit activity of Joy class of Haengbok Daycare Center and analyzing teacher's role and children's change proces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m. According to this research purpose, this research established following research problems.

First, what is the execution process of regional society historic cultural sites visit activity conducted by Haengbok Daycare Center?

Second, what is the change of teacher and children that appeared through regional society historic cultural sites visit activi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Joy class, mixed class of 4 and 5 years

olds of Haengbok Daycare Center in S city, research participants were 19 children of Joy class (10 children in the age 4, 9 children in the age 5) and 1 class teacher. In order to comprehend the problems of regional society historical cultural sites visit of Haengbok Daycare Center, this research analyzed problems while evaluating the curriculum from February to March, 2015 along with the teacher. Research period was from May 6, 2015 to July 31. During this period, the researcher conducted 8 sessions of regional society historical cultural sites visit activity on the problems. This research conducted the 2nd execution process while repeating evaluation process on the problem comprehension, plan for change, and process of practice and change, and observation of the result, and evaluation of process and result. While researching, the researcher conducted participant observation, teacher interview, video filming, and documentary collecting, and the collected data was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problems while evaluating the curriculum included with regional society historic cultural site activity of Haengbok Daycare Center, historic cultural site in the region where the Daycare Center is located was not utilized as the children's natural history education field. Also, due to lack of teacher's historic knowledge and interest, the education stopped at utilizing as mere outdoor activity and walk activity rather than letting the children to feel the original value of regional society historic cultural site. To improve this problem, this research conducted regional society historic cultural site visit activity

through two sessions. Historic cultural site located in regional society is the place where the teacher and the children frequently visited by connecting with life theme, therefore, the researcher determined it was a proper place to conduct visit where children actively participated. The researcher planned visit activity mainly with team activity for the children to cooperate between peers with autonomy, and the teacher conducted a role of constitutor, guider, supporter, and assistant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historical facts and symbols. Also, in order to raise children's interest in visit activity, the researcher let them explore historical meaning variously by systematically planning prior activity, main visit, and post activity.

Second, change aspects of teacher and children through regional society historic cultural site visit activity are as follows.

Teacher and children wondered what the historic cultural site was like in the past while they discovered and explored new relics and treasures in the historic cultural site, familiar in the regional society, also,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visit activity and had confidence as the leader of the activity. Also, the children appeared to understand the life residence mode which has been connected to present life from the past by connecting with their own life while showing interest in it, and expand their activity. Children also appeared to depend on the teacher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exploring historical fact and meaning during the 1st visit period. However, they gradually learned to express and share their idea and opinion through team activity or cooperation between peers. Also, as children actively participated in visit activity,

they came to have the attitude to search and explore new relics and treasures. Teacher came to know that historic cultural site could be utilized as a place for natural history education connected with daily life while planning and conducting regional society historic cultural site visit. In the initial stage of research, the teacher worried about lack of historical knowledge and interest therein, however the teacher could recover confidence and plan activity by more gradually actively exploring. Also, the teacher challenged a new process by applying various teaching· learning methods on prior activity, main visit, and post activity through planning visit activity where children actively participated. And conducted a role of guider and assistant who waited, encouraged, and supported the children to let them explore by themselves, by performing a role of knowledge constitutor who composed and learned knowledge along with the children through the visit activity.